

# ISSUE

## 어김없이 다가온 시험기간 도서관 빌런이 몰려온다!

다섯놈이 모이면 그중 한놈은 꼭 진상이더라...

+

Editor's Pick 1+1  
시험공부 빼고 다 좋을 때

—  
캠퍼스 리빙 포인트  
근로 장학생 하면 생길 일

—  
당신은 아직 힙스터를 모른다  
『힙스터 핸드북』 저자 문희연 인터뷰

# 20

## 대학내일

×

No.830 2017.10.16~2017.10.22

ISSN 2465-7883



# DGIST

## 2018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 전형일정

구분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29 (목)~7.13 (목)	10.12 (목)~10.26 (목)	12.14 (목)~12.28 (목)
면접 대상자 발표	7.27 (목)	11.9 (목)	'18.1.11 (목)
면접 평가	8.7 (월)~8.14 (월)	11.13 (월)~11.21 (화)	'18.1.15 (월)~1.22 (월)
합격자 발표	8.28 (월)	12.4 (월)	'18.2.9 (금)

### 전공별 모집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정보통신융합전공	
에너지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admission.dgist.ac.kr](http://admission.dgist.ac.kr)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http://www.dgist.ac.kr/virtualtour)

### 장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DPF 선발 (DGIST Presidential Fellowship)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지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기숙사 입주	·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우수대학 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Virginia 대학) ·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 박사과정 대상 병무청 배정인원 내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소속 11개 센터 및 연구실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DGIST 서울홍보센터(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35기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모집**

# 청년,

# 세상과 함께하다



- 파견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 파견 규모 약 300명
- 파견 기간  
2018년 1월 ~ 2월 (파견팀별 각 2주 내외)
- 지원 기간  
2017년 10월 13일(금) ~ 대학별 마감일 상이
- 지원 자격  
단장: 대학 교수 또는 직원  
단원: 대학 재학생 (졸업 학기자 제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kucss.or.kr>) 참조

관련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FAQ 및 Q&A란 이용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KOREAN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SERVICE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COVER MODEL**

**EDITOR**  
권혜은 hyen@univ.me

**PHOTOGRAPHER**  
김윤희 Studio AL

**STYLIST**  
안미나

**HAIR**  
상근 엔끌로에

**MAKEUP**  
정화영 보보리스 네트워크



**JEON SEON A**

：  
전선아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학 15

01

지원서에 스스로를 '긍정의 아이콘'이라 설명했어요. 긍정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 있나요? 한 가지 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이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요.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아픈 순간들이 있잖아요.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에요. 슬픈 일이 생겨도 '그래, 행복이 있으려면 슬픔도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휴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즐겁게 보냈다고 들었어요. 거창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목표를 정하면 엮매일까봐 일부러 내려놓고 쉬었죠. 매일 먹고 자기만 한 달도 있고, 또 몇 달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죠. 여행이나 영화감상, 일기 쓰기도 빼먹지 않았고요. 다만 지키려고 노력한 한 가지가 있어요. '매일 한 가지만 깨닫자'였어요. 무엇을 하든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느끼려 노력했죠.



선아씨가 생각하는 YOLO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렵더라도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찾는 거예요.  
제가 휴학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헛된 고민을 한  
시간으로 비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거든요. 한번  
선택한 일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서핑·필라테스·현대무용 등 하나만  
해도 어려운 취미를 여러 개 갖고  
있던데요. '취미'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호기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매번 새로운  
취미들에 도전하는 즐거움이 정말  
커요. 하나에 꽂히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한 달 내로  
실천하는 스타일이예요. 20대가 가기  
전에 주짓수, VR 케이크 잡기 게임, 유럽  
여행, 익스트림 스포츠 등 도전하고 싶은  
취미들이 아직 많아요!



05

다 하려면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대학생 전선아의 하루가 궁금해요.  
항상 손바닥만 한 캘린더를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전에 스케줄을  
짜놓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학교  
강의와 과제, 운동, 아르바이트 등으로  
채워져 있어요.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블로그 마켓 오픈 전에는 할 일이 배로  
늘어서 늘 다이어리가 꽉 차게 돼요.  
물론 하루 종일 침대와 떨어질 수 없는  
날도 있지만요.



06

악동뮤지션 오랜 날 오랜 밤 MV에  
출연했어요. 배우라는 꿈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에요. 운 좋게 최종 오디션까지  
올라가, 신비스러운 세 번째 소녀 역을  
맡았어요. 매일 따라 부를 정도로  
악동뮤지션을 좋아해서 정말 행운이었죠.  
좋아하는 일이라도 평생 직업으로 삼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연기는 40년을  
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COVER MODEL



“

: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렵더라도 저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13

**13**  
**BEAUTY ITEM**  
이주의 모델 전선아의 인생템



16

**15**  
**HOBBY**  
슬라임 가지고 놀면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안해요?

**16**  
**MOVIE**  
아쩔 수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이는 불행 <라스트 홈>



15

## CONTENTS

No.830 2017. 10. 16~2017. 10. 22

**17**  
**ESSAY: 독립일기**  
누구에게나 끝은 오니까

**18**  
**PICK 1+1**  
드라마 <방랑의 미식가>  
+ 영화 <땀뽀걸즈>

**28**  
**UNIV20**  
외국인 친구가 놀러왔다!  
어디에 데려가야 할까?

**30**  
**LIVING POINT**  
근로장학생 하면 생길 일

**34**  
**TRAVEL**  
기억의 베를린

**40**  
**INTERVIEW**  
당신은 아직 힙스터를 모른다  
「후이즈 힙스터?」 저자 문희연

**46**  
**THINK**  
복통과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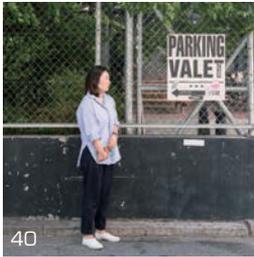
18



28



34



40

## 21 ISSUE



**어김없이 돌아온 시험기간,  
도서관 빌런이 몰려온대!**

- 01. 2017 도서관 빌런 행동지침
- 02. 메모 속 암호로 빌런을 퇴치하라!

**48**  
**PUZZLE**  
기명균의 낱말퍼즐

**50**  
**20'S LAB**  
인생 사진 찍으러 전시회 갈래?

**58**  
**20'S VOICE**  
글의 소용

내가 쓴 글을  
다음주 잡지에서

읽는 기쁨!

+

원고료의 기쁨!

# 20

대학내일

×

## 20's Voice

### 20's Voice는?

매주 대학내일의  
마지막 지면을 장식하는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심는 코너입니다.

### 주제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고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 기고 방법은?

A4 1장(원고지 10매 내외)  
정도의 분량을  
magazine@univ.me로  
보내주세요.

### 글도 쓰고 용돈도 벌고~!

지면에 글이 실리게 된 분께는  
원고료 10만원을 드립니다  
휴대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CONTENTS TEAM

팀장 **홍승우** 부팀장 **정문정**

## MAGAZINE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에디터 **기영균** kikiki@univ.me  
**김슬** dew@univ.me  
**권혜은** hyen@univ.me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인 **남미가** miga@univ.me

## DIGITAL MEDIA

파트장 **정문정** moon@univ.me  
에디터 **김혜원** hyewon@univ.me  
**백수빈** bin@univ.me  
**박현지** lauraruler@univ.me  
**김준용** dragon@univ.me  
**송다예** dda@univ.me  
디자인 디렉터 **윤희선** yoon@univ.me  
디자인 **이승은** lidy@univ.me  
**김지현** uujuinn@univ.me  
**김은미** mongmigu@univ.me  
**이정민** knock\_out11@univ.me

## MEDIA COMMUNICATION

파트장 **홍승우** sseung@univ.me  
책임에디터 **김초롱** rong@univ.me  
에디터 **전아론** aron@univ.me  
**조용재** woongja1@univ.me  
**이민석** min@univ.me  
**조아라** ahrajo@univ.me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김효은** hiho@univ.me  
**김수현** soo@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nine@univ.me  
**한유진** sally@univ.me  
**유희수** hsyu@univ.me  
**김지후** hoo@univ.me

## STAFF

발행·편집 **김영훈** batcong@univ.me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이사 **김창배** 이태영 고문 **박재황**

## MARKETING TEAM

### 마케팅 전략 본부

마케팅전략 1팀  
팀장 **박배길** 수석 **탁귀영** 박지호 이수이  
매니저 **김규태** 최진성 사원 **강지인** 황주랑 정규홍

### 마케팅전략 2팀

팀장 **황정은** 수석 **이수지** **김효선** 임영화 책임매니저 **박종남**  
매니저 **정유진** **이은지** **김다은** **이상복** **김유진** **배용근** **탕예**  
사원 **한문규** 장지 최정인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본부

본부장 **이태영**  
수석에디터 **이정섭**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찬** 수석 **김지혜** **김영수** 책임매니저 **신예지**  
매니저 **김예림** **박미소** **손유리** **송태광** **조하니** **이혜인** **김지영**  
에디터 **정혁준** 사원 **김이현** **권소영**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책임매니저 **신현정** **홍보미** **김영현** **이재우** **유호정**  
책임에디터 **김민정**  
매니저 **육혜진** **한희진** **백소연** **이인재** 사원 **신호영** **박보라** **김수경**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김부진** 수석 **안길상**  
책임매니저 **조소라** **이지연** **문왕기** **허이슬** **양현정**  
**권오태** **김동하** 매니저 **정영수** **홍보람** 사원 **한은지**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종원** 수석 **홍성우** 책임매니저 **유재문** **유진혁** **박준하**  
매니저 **신재영** **김형민** **이준호** **서창호** **정희성** **정기현** **안창민**  
사원 **이성훈** **허정남** **박연우** **최승현** **이지현** **이종혁** **가민희** **윤길주**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5팀

팀장 **이성진**  
수석 **정진현** **김동주** 책임매니저 **양상범** **명범준**  
매니저 **박정은** **송승화** **홍선아** **권민희** **박상현** **최은원** **정세미**  
사원 **최창희**

## CREATIVE CENTER

센터장 **조민형**  
수석 **이윤경**  
매니저 **전단미** **신재인**

## DIGITAL COMMUNICATION TEAM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부팀장 **김현승** 책임매니저 **남승혁**  
매니저 **김찬우** **김동규** **고민지** **김현주** 사원 **이아름**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책임매니저 **강희은**  
매니저 **권가람** **권예빈** **김민주** **서해지**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방수진** 책임매니저 **이교영** **이진희**  
매니저 **김예리** **홍새봄** **박소영** **신예지** 사원 **이나윤**

## DIGITAL CONTENTS TEAM

매니저 **정진복** **서준원** **양준호** **이연제** **최현정** **권예슬**  
사원 **이경민** **한동주** **실다운** **김소영**

## DIGITAL DESIGN TEAM

팀장 **이혜정** 책임매니저 **박지성**  
매니저 **조현선** **오은정** 사원 **김희재** **전계은**

##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수석 **진우경** **강국현**  
매니저 **이상엽** **송정훈** **이재혁** **정혜인** 사원 **이재은** **김지수** **윤철한**

## 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기** **박진수** **효영성**  
책임연구원 **문송이** **송혜윤**  
연구원 **이재훈** **김금희** **최규성**  
매니저 **임다정** 에디터 **남민희**

## SNS전략제안연구소

소장 **정은우**  
사원 **김소연**

##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책임매니저 **김부록** **하윤희** **고은영** **강주민** **심재은** **김진의** **김상호**  
매니저 **이은주** **김가연** **박혜진** 사원 **조이슬**

## 경영지원팀

팀장 **김은선**  
수석 **김소연** 책임매니저 **윤수정** 매니저 **김주은**

## 인재경영팀

팀장 **민정규** 책임매니저 **김이슬** **김예지**

## 인턴

**간남이** **김영화** **김은진** **김하영** **김형민** **문창일** **박서영** **박소희** **박아현**  
**박지원** **박지혜** **박철민** **배효인** **백종서** **봉연준** **송지수** **안예지** **오세원**  
**유건** **유은영** **이민경** **이민영** **이우혁** **이재린** **정다혜** **정성훈** **정채연**  
**조윤진** **최문정** **최지영** **최화인** **최희림**

긍정의 아이콘  
선아 씨의 인생템

:

## 표지|모델 인생템

EDITOR 권혜은 hyen@univ.me



세라미딘 크림  
닥터자르트

01

머리부터 발끝까지 극건성에, 예민한 피부와 체질을 타고났어요.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는 하는데, 그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크림이죠! 며칠만 발라주면 피부가 쉽게 진정됩니다. 제 피부에는 소방관 같은 크림이랄까요?



루주 뷔르 꾸뛰르 13호  
인생로랑

02

립 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오렌지-레드 계열을 즐겨 바르는데, 그중 1순위로 쓰는 제품이랍니다. 오렌지에 약간의 레드 컬러가 더해져서 썩한 오렌지가 아니어서 좋고, 바를 때 촉촉해서 더 좋아요. 케이스까지도 정말 예쁜 제품이죠.



스노우 파운데이션 012호  
디올

03

피부 화장을 두껍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최대한 가볍고 산뜻한 파운데이션을 찾다가 드디어 정착했습니다. 발림성도 좋고, 가벼운 파운데이션이죠. 저는 핑크빛의 012호를 사용하는데 얼굴이 더 환해 보이는 것 같아요.



루비우  
맥

04

이번에 홍콩 여행을 갔다가 유명한 맥 루비우를 구입하게 됐어요. 레드 립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지 레드 립 중에는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발림성·지속력·색깔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립스틱이라서 항상 들고 다닙니다!

01

제1회 EBS필통 UCC 공모전 (~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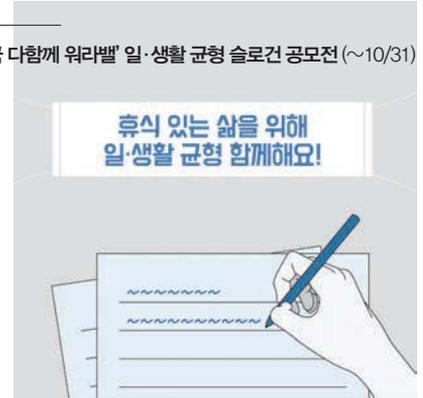


1년 365일 스마트 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 폰에 일과  
 건이 있는 친구를 모여봐. EBS필통에서 제1회 EBS필통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스마트 폰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주제  
 든 상관없어. 너만의 개성을 담은 UCC를 제작해봐. 전달력,  
 독창성, 활용도, 기여도, 영상미로 평가해 1등에게는 300만원  
 의 상금까지 준다고 하니 너에게 딱이로구나~!

주최 EBS Feeltong  
 기간 2017년 10월 31일(화)  
 태그 #Feel가득 #통통튀는 아이디어

02

'대한민국 다함께 워라밸' 일·생활 균형 슬로건 공모전 (~10/31)



글을 쓰는 족족 명언을 대방출하는 친구들 모여봐! 고용노동  
 부에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대한민국 다  
 함께 워라밸'의 일·생활 균형 슬로건 공모전을 연다. 일·생  
 활 균형을 위한 응원 문구, 실천 내용을 담은 슬로건이라면 무  
 엇이든 가능해. 최우수상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너에게 딱이로구나~!

주최 고용노동부  
 기간 2017년 10월 31일(화)  
 태그 #대한민국\_모두가 #일\_생활\_균형을\_찾아가는\_그날까지

그래 바로 너!

:

시험 공부요?

기말고사가 있는 걸요?

## 시험은 기말부터라 생각하는 너를 위한 공모전 BEST 4

03

제5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10/31)



인스타그램 피드가 풍경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는 풍경 찍사  
 친구를 모여봐. 국토연구원에서 제5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  
 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주제는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  
 운 국토,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국토의 재발견으로 주제와 연  
 관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돼. 대상에게는 200만원의  
 상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너에게 딱이로구나~!

주최 국토연구원  
 기간 2017년 10월 31일(화)  
 태그 #나라사랑 #풍경스타그램

04

제주오름 가치발굴 콘텐츠 공모전 (~11/3)



방학 때마다 제주도에서 살다시피 하는 친구를 모여봐. 이니  
 스프리 모음재단에서 제주오름 가치발굴 콘텐츠 공모전을 실  
 시한다. 오름의 풍경, 과거와 현재의 변화상을 담은 사진 또  
 는 제주다우미의 스티커 디자인이나 오름에 대한 그래픽디자  
 인·일러스트 분야로 지원 가능해. 대상에게는 200만원의 상  
 금까지 준대. 너에게 딱이로구나~!

주최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기간 2017년 11월 3일(금)  
 태그 #효리네\_민박\_햇물 #제주오름\_면소

# 슬라임 가지고 놀면 이렇게 재밌는데

# 왜 안 해요?

EDITOR 김슬 dew@univ.me



오늘의 취미 전도사:  
목동 슬라임 셰프 이진영, 21세  
유튜브에서 슬라임을 영접하고 제대로 꽃혀버렸다.  
쫄득한 손맛에 빠져 끄떡하면 슬라임을 만들어내는  
'액괴' 중독자.



## 내겐 너무 매력적인 액체 괴물

6개월 전, ASMR 동영상을 보다가 슬라임을 만나게 됐다. 핑크색의 폭신폭신한 촉감(눈으로도 그 촉감이 느껴졌다)의 슬라임이 쪽쪽 늘어나는데... 워낙 말랑말랑한 물체를 조물조물하기는 걸 좋아하는 터라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때부터 인스타그램의 유명한 슬라임 계정들을 팔로우하며 눈팅하다가 직접 재료를 구매해 만든 지는 3개월 정도 됐다. 슬라임은 고체와 액체의 딱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쪽쪽 잘 늘어나면서도 손에 들러 붙지 않는다. 일반적인 클리어 슬라임, 알갱이가 든 크런치 슬라임, 사각사각한 질감의 셔벗 슬라임 등 종류도 다양하다.

## 생각을 버려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손으로 늘리면서 놀면 된다. 크런치 슬라임은 늘리다 보면 알갱이 때문에 기포가 생기는데, 그 기포를 터뜨릴 때의 소리와 촉감이 포인트. 내가 가장 아끼는 빨간색 폼 슬라임 역시 기포 터지는 소리가 참 일품인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다른 종류의 슬라임을 섞는 시도도 하기도 한다. 한 달 정도 되어 수명이 다한 크런치 슬라임을 클리어 슬라임과 섞어 다른 색상으로 만드는 거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OO 액괴' 영상처럼 어떤 대상을 상상하면서 창작력을 불태우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다.

## 오늘은 내가 슬라임 요리사

만들어진 슬라임을 사기도 하지만, 원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준비물은 주성분이 PVA인 물풀과 봉사. 봉사는 약국에서 파는 화학물질로 도자기의 유약 원료, 세제 등에 사용된다. 물풀을 붓고 따뜻한 물에 녹인 봉사를 섞으면 액체와 고체 사이의 형태가 된다. 여기에 색소나 물감, 틈트, 클레이를 넣어 원하는 색깔로 변신시킨다. 다른 재료를 추가해 셔벗이나 크런치 슬라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글리터 같은 부속품을 활용해 취향에 맞는 슬라임을 완성하면 된다. 내 눈에 예쁜 슬라임이 만질 때도 더 기분 좋다는 사실.

## 하찮은 것이 사랑 받는 이유

슬라임 하나를 만들 때 드는 재료비는 약 1000원. 길 가다 마주친 다이소에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만드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10분, 공을 들여도 약 30분. 하지만 그 말랑한 물체가 주는 안정감은 상상 이상이다. 한번 조물조물하다 보면 몇십 분 내내 아무 생각 안 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엄청나게 바쁜 일상에서 원초적인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이랄까. 슬라임을 손으로 쿡쿡 누르고 늘리는 영상을 넷 놓고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영접해보길 권한다. 우리 에겐 하찮은 재미가 필요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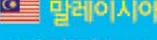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해외 취업

정부지원 프로그램

- 서울시 지원금 최대 **280만원 지원!**
-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성과금 **200만원 지원!**



국가	모집분야	지원자격
 <b>미국</b> J1 Visa Program	Web, Graphic, Fashion Design	학력: 4년제 대학졸업 예정자 이상 졸업 후 1년 경과자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 사항 필요 전공: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학과 디자인 계열 영어: 중급 이상
 <b>싱가포르</b> WP Visa Program	5성급 호텔 Food & Beverage Front Office	학력: 2년제 대학졸업 예정자 이상 전공: 무관 (단, 관련전공자 우대) 영어: 중상급 이상
 <b>말레이시아</b> Work Visa Program	Aegis 기업 - Expedia 고객상담	학력: 2년제 대학졸업 예정자 이상 전공: 무관 경력: 서비스 관련 전공자 우대 영어: 초중급 이상



단, 정부 지원금 제도는 관련 기관의 개인별 심사 승인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Seoul woman up  
 서울특별시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상담 및 문의

전화 : 02-6929-0011 (내선 : 0947 / 6225)  
 메일 : womez59@hanmail.net

**20**  
**대학내일**  
 ×  
**What's your  
 hobby**

취미전도사를 기다립니다.  
 자신의 취미를 자랑하고 싶다면  
**magazine@univ.me로 연락주세요!**

#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이는 불행



## MOVIE 라스트 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럼에도 순간의 안락함을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괴물이 된다.”

“우리 사람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 15년도 더 된 영화 대사지만 요즘도 여지껏기서 인용된다. 오래 남는 명대사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자기 얘기처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은 자신이 인간과 괴물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리를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특별히 나쁘게 살지는 않았다고 자신한다. 그럼 정말 아무도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는 것이다.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고.

괴물 되기는 쉽다. 딱 한 마디의 핑계만 있으면 된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살다 보면 불가항력도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안다. 그럼에도 순간의 안락함을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괴물이 된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느낀다. 그마저도 처음만 힘들 뿐. 다음엔 조금 덜, 그다음에도 조금 덜 느끼다가 끝내 뻘뻘해진다.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영화 <라스트 훔>의 내쉬(앤드류 가필드)도 괴물이 되기 직전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로 어머니, 11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 모텔을 전전한다. 집에 쳐들어와 그를 쫓아낸 건 부동산 브로커 리 카버(마이클 새넌)다. 리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었던 내쉬지만 일자리를 주겠다는 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나선다. 내쉬는 리가 그랬던 것처럼 연체

금이 밀린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며 평소 쥐어본 적 없을 정도의 돈을 벌고, 빼앗긴 집을 되찾을 꿈에 부른다.

문서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입주자를 내쫓고 거액을 가로채는 리는 이미 괴물이다. 그의 핑계는 나라가 처음 세워지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패배자들을 구해주지 않아. 미국은 승자들을 위해 세워진 나라니까. 100명 중 한 명만 방주에 타는 거야. 나머지 99명은 가라앉는 거지. 난 가라앉지 않을 거야.” 내쉬에게도 할 말이 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예요. 우리 가족 밤이슬 피하게 하고 입에 뭐라도 넣어주려고.”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뻘한 핑계를 공유하며 둘은 더 많은 집을 사들이고 더 많은 사람을 쫓아낸다.

<라스트 훔>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모델로 한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됐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두가 내쉬처럼 다른 사람을 길바닥으로 끌어내진 않았다. 강제 퇴거 통지를 받은 그린(팀 귀니)은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모으고, 무료 변호사를 구한다.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내쉬와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의 노력을 좌절시킨 건 리와 내쉬가 조작한 문서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모두가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는다. 그 차이가 사람과 괴물 중 어느 쪽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 EPISODE 15 -

## 누구에게나 끝은 오니까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 C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험 준비 때문에 일찌감치 내려왔다가 벌써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다음에 서울에서 보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으려는데 C가 내 이름을 불렀다. “슬아.” “응?” “아빠한테 잘 해드려.”

C의 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다. 오래 아프셨고, 병 외에도 가족을 힘들게 했던 가장이었다. 아버지 빚 때문에 C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받은 월급의 거의 전부를 집에 보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울면서 잠드는 날이 많았다. 그런 C가 요즘 들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꺼낸다. 그토록 미워했는데, 괴로웠던 기억은 흐릿해지고 좋았던 날들만 선명해진다. 인간이 참 간사하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알겠지?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앞의 말에 이어지는 당부에 나는 그저 “응, 응” 고개를 주억거렸다.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안 계셨다. 식탁에 있는 큰 카스텔라 봉지가 눈에 띄어 동생에게 물으니 아빠의 저녁 식사란다. “아빠 빵 안 좋아 하잖아!” 카스텔라의 전말은 이랬다. 아빠는 신부전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투석을 받으러 가는데, 그날따라 무화과가 당겨 잔뜩 먹고 병원에 갔다. 그런데 투석을 받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고, 의사로부터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맵고 짠 음식은 당연히 안 되고, 이도 저도 다 안 돼서 결국 빵을 먹게 됐다고 했다.

저녁에 돌아온 아빠에게 이것저것 묻자, 아빠는 혈관 확장 수술을 받은 왼쪽 팔을 만져보라고 내밀었다. 주삿바늘 자국이 팔뚝 가득 어지럽게 남아있었다. 손을 갖다 대자 ‘찌르르’ 울림이 느껴졌다. 진공 상태 같기도 하고,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진 같기도 했다. 투석 후엔 어지러워서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 그날 일 못 하는 게 아깝다, 병원에서 투석 횟수를 세 번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더라... 자식 앞에서 ‘아프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양반이었는데, 힘들어서인지 아파서인지 아빠는 조금 변한 것 같았다.

그 앞에서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떻



게 하는 게 아빠에게 ‘잘 하는’ 것인지 몰라 허둥댔다. 그냥 이번 겨울에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아빠는 12월에 있을 이사 준비나 잘 하라고 핀잔을 줬다. “그럼 봄에 가요, 재한테 운전 맡기고, 아빠는 편하게 앉아만 있어요.” 아빠는 웬일로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대답했다. 내년 봄, 우리는 두 번째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다. 나는 세 밤을 더 자고 서울로 돌아왔다. 출근 첫날, 각자 명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선배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부모님 영상을 많이 찍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사진을 보는 거랑 목소리도 들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기분은 완전 다르니까.” 그건 아마 이별을 준비하는 또 다른 방식일 테다. 더 많은 모습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누구에게나 끝은 찾아오니까, 나 역시 천천히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뜻한 봄날의 제주에서 유채꽃 앞에서 있는 아빠를, 바닷가를 걷는 아빠를, 회를 맛있게 먹는 아빠의 웃는 얼굴을 남겨놓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EDITOR 김슬 dew@univ.me

ILLUSTRATOR 이다혜

시험 공부 빼고 다 졸음 때

전공 책 대신 봅시다

“우왓, 우마이!” 낮맥의 자유를 꿈꾸며

‘공부 왜 할까? 뭘 위해? 아니 인간은 왜 살까?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서 뭘 얻으려는 걸까. 도대체 행복이 뭘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다 때려치우고 싶다. 아, 배고프다.’ 시험 기간 도서관에 가면 철학자가 되는 병을 앓았다. 뇌는 에너지를 쓰지만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무서운 병. 시험 기간 내내 도서관에 있었지만 성적은 때려치운 사람처럼 받게 된다. 꼬리를 무는 철학 질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먹는 것뿐이었다. 신기하게도 먹고 나면 소크라테스에서 헤르미온느로 변해 책상에 앉을 마음이 생겼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인 『방랑의 미식가』는 60살에 은퇴한 아재가 할 일 없이 떠돌며 밥을 먹는 드라마다. 회사에 갈 일 없는 아재는 마지막 시험을 치고 강의실을 나오는 대학생처럼 훌기분한 마음으로 온갖 식당을 쓰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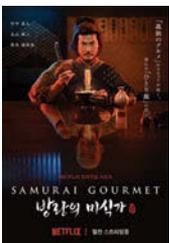
**WHO**  
지금 배고파서 사는 게 힘든 사람



드라마의 킬링 파트는 상상 속 사무라이를 불러내 억눌렀던 욕망을 표현하는 장면. 사무라이는 불친절한 식당 주인을 향해 욕지거리를 하거나 상을 엮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후루룩댄다. 아재는 그렇게 상상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 표정으로 “오오, 우마이!”를 외친다. <고독한 미식가> 제작진의 두 번째 훈방 시리즈라 그런지 ‘우마이’는 빠지지 않고 등장. 2세대 먹방 BJ 우마이 아재는 연신 맛있다고 소리치며 낮맥을 한다.

만약 사무라이가 우릴 봤다면 “어이, 대학생,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며 전공 책을 반으로 땀방 배어버렸을 거다. 그러나 우마이 아재처럼 온갖 일탈을 저지르는 상상을 하다 보면,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며 금세 마음을 다잡게 된다. 대신 시험이 끝나면 꼭 낮맥을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내 안의 철학자에게 우린 먹는 존재라고 당당하게 말할 테다.

DRAMA <방랑의 미식가>



EDITOR 김준용 dragon@univ.me

## 시험이고 뭐고 그냥 이 영화 봐요

스코틀랜드로 여행 간 친구가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거긴 아침이었을 것이다. 내가 여기 다시 올 날이 있을까, 이곳이 너무 좋아, 라는 말 뒤에 친구가 덧붙였다. 돌아가면, 내 인생을 좀 더 잘 돌보고 싶어졌다고. 그곳이 좋을수록, 방치해두었던 서울에서의 생활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좋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돌아가 더 잘 살고 싶어지는 마음. 잊고 살던 나를 생각하게 되는 마음. 그때 친구에게 나는 어제 본 영화 얘기를 해주었다. 네가 서울에 있었다면 함께 보았을 영화라고. 꼭 여행이 아니어도, 때로는 좋은 영화 역시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느냐고.

평일 이른 저녁이었다. 작은 상영관에는 나를 포함해 저마다 혼자 온 네 명의 관객이 앉아 있었다. 길지 않은 러닝타임 동안, 우리는 떨어져 앉은 각자의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리다 훌쩍이다 했다. 영화가 끝나고 조그만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게 되었을 때, 밝은 조명 아래 그제야 서로의 얼굴덜룩해진 얼굴을 보며 조금 멧쩍기도 했는데 그건 어쩐지 다정한 기분이기도 했다. 누구에게라도 얘기해주고 싶은 영화였다. 우리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마도 비슷한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이다.

EDITOR 김산지 | summer@univ.me

**WHO**  
시험 기간엔  
청소도 재밌는 사람



<땀뽕걸즈>는 댄스스포츠를 배우는 거제여상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수업 시간엔 돌돌 만 체육복 위에 엎드려 자고, 시험 답안지엔 5번으로 줄을 세울까 2번으로 줄을 세울까 고민하지만, 방과 후 '땀뽕'을 배울 때만은 눈이 빛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삼겹살을 굽고, 댄스화를 매직으로 색칠해주는 선생님.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애তхан 건 역으로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마다에겐 말 않는 사정이 있다. 새벽까지 알바하는 현빈이가 고깃집 불판 앞에서도 스텝을 연습하고 있을 때, 입원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어린 동생들 갖다 주라고 제자의 손에 빵 봉지를 들려 보내는 선생님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땀뽕을 더 응원하고 싶어진다. "쌤 다 컸네. 장가 가도 되겠네!" 하는 농담에 같이 웃다가도, "잘 하는 게 아닌데, 열심히 하라고 봐준 거 그게 고맙다" 울먹이는 목소리에 또 같이 울게 된다.

아, 내가 저런 걸 잊고 있었구나. 저게 뭔지, 잊고 있었구나. 극장의 어둠 속에 앉아 내내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반짝이는 영화 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다. 우리가 잊고 살던 것들. 각자의 이유로 울게 하는 것들. 당신에겐 그게 무엇이었냐고, 이 영화를 본 이와 오래 얘기 나누고 싶다.

MOVIE <땀뽕걸즈>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univ.me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진은?

전신 사진 2장 이상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얼굴 사진 4장

+ @끼를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1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촬영 진행

2 짧은 인터뷰

3 '뷰티 인생템' 4가지 소개

4 그 외 대학내일 행사 참여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 20

## 대학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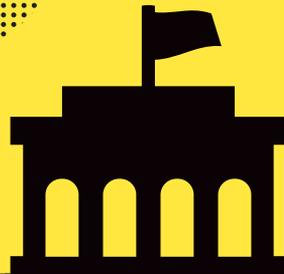


# Find Cover Model

# 2017 도서관 빌런 행동지침

결국 돌아오고만 시험 기간.  
평소에는 얼굴 보기 힘든  
학우들까지 모여들어 도서관의  
인구밀도는 최강인데, 열 사람이  
모이면 꼭 한 명은 진상이라는  
말처럼 빌런 밀도도 최강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열공을  
방해하는 도서관 빌런들을 위한  
올바른 도서관 이용방법 8선!  
어기다가 잡히면 가만 안 뒤.

EDITOR 권혜은 기명균 kikiki@univ.me  
ILLUSTRATOR 남미가



01  
자  
리



공부 시작도 하기 전에 열 받는 순간, 분명 가방이랑 전공 책은 놓여 있는데 한 시간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자리가 있는데 왜 앉질 못하니...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제발 짐을 가져가자. 그래야 그동안 다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다. 잠시 바람 쐬고 오려면 아무리 길어도 30분은 넘기지 말아야지.  
 그리고 5분 뒤에 오든 10분 뒤에 오든 친구 자리는 말아주지 말자. 누구 친구 없는 줄 아냐?

02  
이  
어  
폰  
페  
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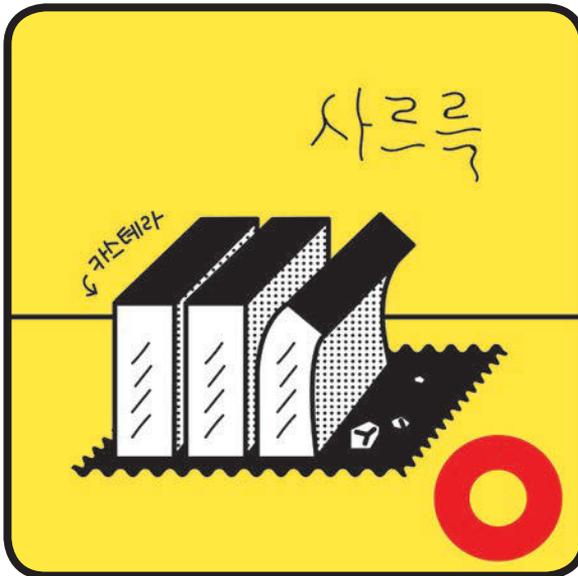
도서관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집중에 도움되는 모닥불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영어 듣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노래를 듣는 것도 자유다.  
 노래를 들어가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만 이어폰 밖으로 새어나오면 스피커랑 다를 바가 없다.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 소리가 새는데, 조용한 도서관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네 음악 취향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제발 노래 들으려거든 볼륨부터 줄이자.

03  
미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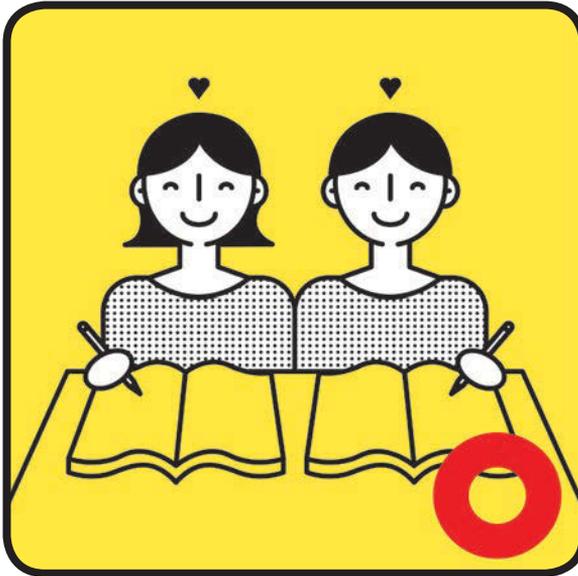
책상 위에 음료를 쏟아서 난리법석 떨지 않는 한 음료 마시는 것 자체는 괜찮다. 은은한 커피 향이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한다잖아? 문제는 얼음이다. 방울 흔드는 무당처럼 세게 흔들지 않아도 테이크아웃 잔을 들거나 내려놓을 때 달그락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최악은 버블티. 덜 녹은 각얼음 사이에 몇 개 안 남은 타피오카를 빨아올리려다 '꾸루룩' 소리를 연발하고, 킁 씹듯 타피오카 씹어대는 소리가 요란하다. 삼킬 수도, 녹여 먹을 수도 없으니 주의할 것.

04  
스  
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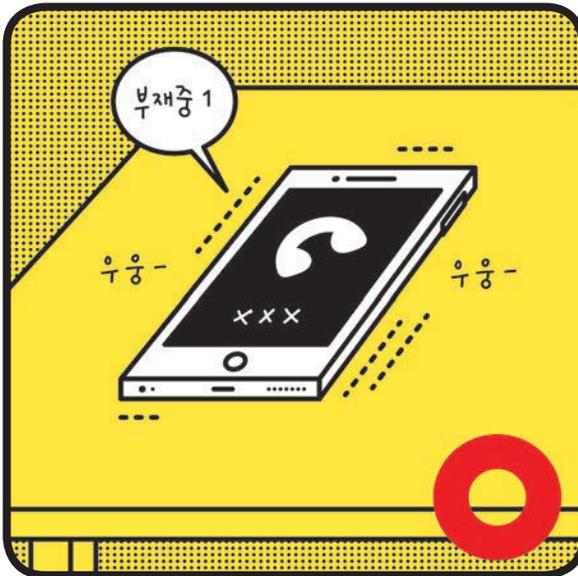
안 쓰던 뇌를 오랜만에 쓰다 보니 허기가 진다. 고생한 스스로에게 간식을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도서관임을 감안해서 간식 종류를 택해야 한다. 부스럭거리는 봉지과자는 절대 안 된다. 4점으로 총총이 만들어져 요란스레 부서지는 '꼬북칩' 같은 걸 먹는 건 거의 싸우자는 거다. 정 배가 고프면 카스테라 같은 걸 가져와 조용히 녹여먹어라. 봉지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뜯어라. 쪼잔하다고? 부쳐나 예수라도 열 받았을걸?

05  
커플



믿음 · 소망 · 사랑 그중 으뜸은 사랑이어라. 그래도 사랑이 면죄부가 될 거라는 착각은 버려라.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가 유죄인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죄인이다. 안 그래도 인구 밀도 높은 시험 기간 도서관에서 커플끼리 공부 말고 연애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오, 안 나오? 소곤소곤 낄낄대도 다 들리고, 책상에 사각사각 필담 써도 방해된다. 뽀뽀하고 껴안다 못 해 책상 아래서 동동 구르고 있는 발 네 개는 어쩔 건데, 최소 시바신의 현신인 거 아니면 30cm 적정 거리 유지하기로 해.

06  
휴대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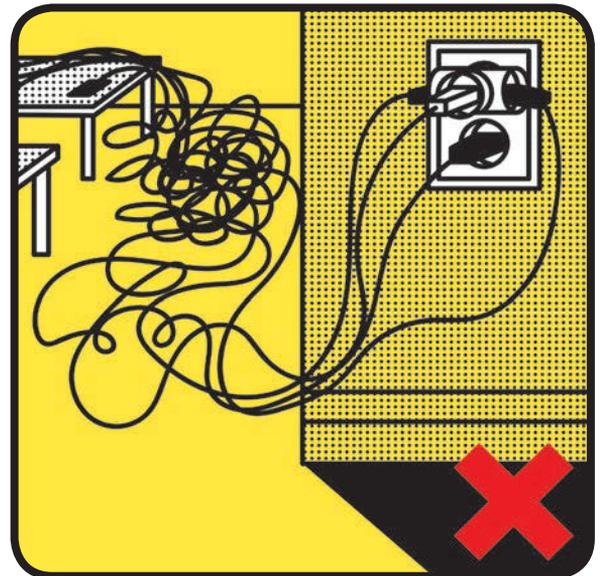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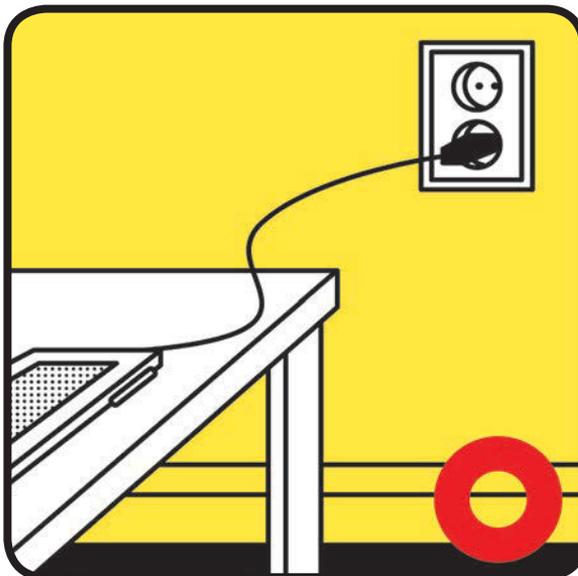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진동은 매너'라고 으쓱대면 될 하나, 책상에 버려두고 가면 노 매너인 것을. 집에 큰일 난 줄 알았다. 나간 뒤로 1분 단위로 드르드르 울려서. 웬만하면 무음으로 바꾸거나 지방이 진동을 흡수하도록 몸에 딱 붙여라. 설마 알람까지 진동으로 맞춘 건 아니겠지? 이게 왜 민폐인지 모르겠다면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인간 모닝콜이 아님을 명치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게 좋다. 콜린 퍼스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주인 잃은 매너 모드는 살심을 키운다.

07  
노트북

동영상 강의 듣고, 리포트 쓰는 거 다 좋다. 근데 대체 키스킨은 왜 안 써? 마우스 짹짹 소리도 미치겠는데, 키보드까지 쉴 새 없이 달락달락달락.

도서관에서 타자연습 하는 줄 알았더니 PC개뚱 중... 인간의 눈빛이 레이저 건이었다면 그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듯.

시험 망해서 분노의 타자질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거든 다했소에서 키스킨 하나 구비해라. 1000원도 없다는 적반하장에게는 키보드에 '아아나 시원하게 쏟아지길 빌어드려요^^'

08  
콘센트

도서관 열람실에서 배터리 한 잔이야 뭐야. 폰만 충전 중인 줄 알았는데 얼씨구 노트북에, 패드에, 이북리더기에 온 전자기기가 다 한 사람 까다. 집에 전기 끊긴 거면 이해라도 하지, 왜 충전하면서 너튜브 보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로 전기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게 맞다고 본다. 하다못해 줄 정리라도 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도서관에서 폴짝폴짝 줄 넘기하게 만들지 말고, 완충됐으면 빨리빨리 좀 뽑자. 5% 남은 사람들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 안 보이나?

# 메모지 속 암호로 빌런을 퇴치하라!

아침부터 열공하는 모습 보기 좋다:)  
 발표 자료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움이 있으면 알려줘  
 나로 사실 부탁할 게 있거든  
 심각한 건 아니고  
 발표 도와달라는 것도 아내가 잘지 않구하  
 발표 도와달라는 것도 아내가 잘지 않구하  
 신경질 내지 말고 들어줄래?  
 어... 쪽지 세로로 좀 읽어줘.



\* 시사경제용어 명칭 족보 공유\*

시	방	정	신	나	간	세	키	그	마	헤
장	카	부	용	스	점	계	코	롤	스	리
경	슈	실	파	닥	세	무	K	스	터	판
제	랑	패	산		와	역	I	해	프	드
	스		스		직	기	K	킹	랜	
			왕		점	구	O		차	
					세				이	
									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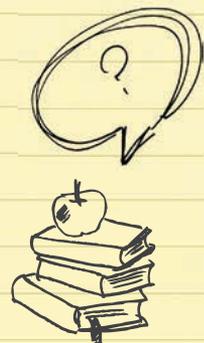
지각하지 말고,  
 퍼자지 말고  
 열공해라!

님의 선배로부터...



행동지침을 고분고분 따르면 그게 빌런인가. 아무리 말해도 안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럴 땐 혼자 고통받지 말고 포스트잇으로 마음을 전하자. 싸움은 일으키지 않되, 미묘하게 기분 나빠지도록, 이렇게라도 해소해야 병이 안 생긴다.(세로읽기 주의)

헛(리처엄 들린 누도 있는데  
기여우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 걸어 보라고  
힘도 그래서  
지금 땀내서 땀냄새 맡 불여보안.  
마음에 안 타셔도, 음려수 타고  
인강 들는 거 힘내세요!  
생강차인데  
헛가침에 꼭답니다.  
살구맛 목캔디도 같이 두고 가요  
아. 답장은 살현으로 오지?



전 17학번 쌤생안데요, 혹시 여기 자리 있냐요? :) 11:13  
세 명에서 같이 밥 먹고 왔는데 아직 안 계세요. 자리 있냐요? 12:46  
넷플릭스 보고 왔는데도 아직이네요. 여기 자리 있냐요? 13:54  
니코틴 충전하고 왔는데 아직이네요. 여기 자리 있냐요? 14:40 ”

죄음 뵙겠습니다. 지금  
먹고 계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소리가 귀에 거슬려요.  
지구력이 떨어지는 시점이라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저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름 공부 잘 하시고요,  
발랄한 하루 보내세요!



# 외국인 친구가 놀러 왔다! 어디에 데려가야 할까?

우정엔 국적이 없다고 했던가!  
언어는 다르지만 찡한 마음을 나눴던 외국인 친구가  
나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놀러 온단다.  
아...?  
너무 반갑고 고마운데 막상 어디에 데려가야 할지  
막막하다. 이것저것 검색해보도  
감이 안 잡히기는 마찬가지.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경험자들의 노하우를 상황별로 정리해봤다.

EDITOR 양현주 potatobeaver35@gmail.com  
INTERN 김영화 DIRECTOR 김혜원



## 이미 한국에 몇 번 와본 친구다

### 추천 코스 부암동 + 홍대

경복궁, 한강, 인사동. 뻔한 코스는 이미 다 가본 외국인 친구라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내가 평소에 친구와 만나서 노는 장소를 소개시켜주자. 고즈넉한 부암동이나, 예쁜 카페가 많은 홍대 같은 곳

### 1 부암동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고즈넉함이 있어서 부암동을 좋아해.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그 분위기를 전하고 싶어서 데리고 갔었지. 창의문과 윤동주 문학관을 둘러보고 계열사 치킨으로 마무리하는 코스였는데, 창의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풍경이 신기했는지 사진 엄청 찍더라고. 또 멕시코 친구는 계열사 치킨을 먹고 인생 치킨이라며 내내 감탄하기도 했어. -양현주



상황  
02



### 2 홍대

명동이나 인사동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북적하잖아. 그래서 내 외국인 친구들은 관광지じゃ 아닌, 진짜 한국 대학생이 놀러 가는 곳에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힘의 고장(?) 홍대에 데려갔어! 예쁜 카페 가서 인증샷 찍고 싶어 하는 건 외국인도 마찬가지더라. 관광객 없는 숨은 맛집 소개해주고, 아기자기한 소품숍 데리고 갔더니, 대만쪽해서 그날 인스타그램 폭풍 업데이트하심! - 김미송

## 나보다 더 서울을 잘 아는 한국 마니아라면?

### 추천 코스 제주도 + 경주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에 오는 한국 마니아 친구라면? 이제 지방으로 갈 차례! 외국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제주도와 도시 전체가 문화 유산인 경주까지, 서울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자.



상황  
03

한국 방문이 처음인 친구다

추천 코스 **경복궁 + 광장시장**

한국에 처음 여행 온 외국인 친구라면 가장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코스를 추천한다.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궁을 소개하거나, 외국인에게는 낯선 한국 음식을 대접하자.

1 **경복궁**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중국인 유학생 친구와 경복궁에 갔었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결과는 역시 성공적! 한복 입고 경복궁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냥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툰 중국어로 건물들을 소개해줬는데,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간다는 느낌이라서 더 기억에 남았다. -정은혜



상황  
01

SEOUL ~  
JEJU ISLAND



2 **광장시장**

우리 학교에 온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어. 다 같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광장시장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의외로 호응이 좋더라고. 시장 한복판 노상에서 아주머니가 바로 부쳐주시는 빈대떡도 신기해하고, 다 먹고 나서 광장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어하더라. 기념품이라고 김이랑 열쇠고리도 잔뜩 사 가던데? -양현조



1 **제주도**

서울을 마스터한 친구에게 이제는 색다른 걸 보여주고 싶었어. 옥빛 바다와 물담이 있는 제주도가 딱이라고 생각했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 결과적으로 그동안 한국 여행한 중에 제일 좋았대. 4박 5일 동안 제주도에서 캠핑을 했는데, 일정에 쫓기지 않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그랬거든. 다음 번에도 또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 -양주연



2 **경주**

의외로 외국인들은 경주를 잘 모르더라고. 경주에 볼 거 진짜 많은데! 경주국립박물관, 천마총, 안압지, 불국사. 하루 코스로는 부족할걸? 외국 친구들이 제일 신기해했던 건 천마총. 처음엔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무덤이라고 밝히니까 진심으로 무서워했어. 엄청 큰 무덤이라면서 하하. -김민영



# 학교 수업 다 들으면서 돈도 벌지만... 근로장학생 하면 생길 일

## 01 근로장학생 자리를 구하려면 어둠의 뒷거래가 필요하다?



근로장학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생,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근로장학생. 전자의 경우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에 맞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학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시 모집한다. 공식적으로는 앞서 말한 과정을 따르지만, 사실 다들 알다시피 근로장학생을 구할 때는 인맥이 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상시 모집하는 학교 근로장학생의 경우, 지인 추천으로 자리를 구하는(물려받는) 사례가 많다. 새삼 깨닫는 인맥 관리의 중요성...

**TIP.**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싶다면,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을 유심히 살피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모집공고를 올리기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구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과 단체 카톡방을 통해 사람을 찾는 일도 잦으니, 카톡 정리할 때 학과 공지방만큼은 꼭 남겨두자.

## 02 근로장학생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NO NO



간혹 근로장학생이 정말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자 리만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 아니야. 배치되는 부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담당 선생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우편, 물품 배달,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등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일은 모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이 캠퍼스를 거닐다가 받게 되는 코팅된 설문지, 무심코 지나치는 홍보 포스터는 모두 근로장학생들의 피 땀 눈물이 서린 것입니다. 하하. 물론 남들이 생각하는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 이 있긴 하다. 식당도 손님이 몰리는 점심/저녁 피크 타임이 지나면 조금 한가하듯이, 근로장학생도 일이 몰리는 시간만 지나면 한가해진다. 그럴 때 일부 건설적인 학생들은, 과제를 하거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TIP.**

- 1 특별한 일 없이 대기하는 시간이라도, 어쨌거나 근무시간의 일부임을 명시하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무시간엔 이어폰을 끼면 안 된다^^
- 2 도서관 반납 창구나 인포메이션 데스크는 근무 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반면 한 공간에서 근무시간 내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해야 하는 학과 사무실은, 여느 사무직 알바와 다를없이 늘 긴장해야 하는 자리다.

방학 동안 신나게 노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면, 다음 학기는 한 톨 낭비 없이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주목! 학교 도서관, 열람실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나를 맞아주던 바로 그 사람, 근로장학생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근로장학생은 공강 시간을 활용해 돈도 벌고, 근무시간에 자기 공부를 할 수도 있어 꿀알바로 잘 알려져 있다. 근로장학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진짜 '꿀알바'인 것인지, 교내외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했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EDITOR 양현조 potatobeaver35@gmail.com INTERN 김영화 DIRECTOR 김혜원 ILLUSTRATOR 김은미

### 03 근로장학생의 장점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교 수업 다 들으면 돈도 번다! 근로장학생은 학교 내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강 시간 및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알바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교통비도 아낄 수 있다. 일주일 내내 헤미온느 모드로 산다는 S는, 21학점 풀강에 대외활동까지 하느라, 알바 할 생각은 꿈도 못 꾸었는데, 공강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으니 행복하다고 했다.

덧붙이자면, 근로장학생은 학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휴학생에게도 꽤 괜찮은 일자리다. 일단 다른 알바에 비해 시급이 높다(교내 근로 약 7000~8000원). 휴학생 Y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생활 패턴도 망가지고 무기력해져서 고민이었는데,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다른 알바보다 업무 강도도 낮은 편이니, 학교 근처에 사는 할 일 없는 휴학생이라면 고려해볼 것!

#### TIP.

- ① 장학금 명목으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고 순수하게 다 받을 수 있다! 소득으로도 안 잡히니 소득분위 걱정도 덜 수 있음. 만세!
- ② 카페, 식당, 편의점 같은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매출을 내야 돈을 버는 사장이 없다. 즉 매출 압박, 사장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덜해서 좋다고 함.

### 04 근로장학생의 단점



일이 널널한 것은 근로장학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 아는 사람은 알 거다. 다들 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처음엔 일이 없다고 좋아하겠지만, 뽀아 놓고 일을 시키지 않는 담당 선생님을 원망하게 될 거다.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은 거친 생각과 일거리를 찾는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선생님….

공강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일단 대학 생활의 낭만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 일주일에 주4일만 등교하는 것도, 공강 시간에 포켓볼 치러 나가는 것도, 오후 1시에 일어나 첫 수업을 시작하는 것도, 근로장학생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수업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개미처럼 일해야 할당된 시간을 채울 수 있다.

#### TIP.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근로장학생의 경우, 풀타임(9시~18시) 근무인 경우가 많다. 휴학생이 아닌데 어떡하죠... 좌절하지 말고 국가근로장학생을 신청해보자. 공강 시간에만 근무할 수도 있다.

05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근로장학 추천/비추천



근로장학생이라고 다 같은 근로장학생이 아니다. 부서에 따라 근무 환경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 9월에 입학 사정관실에서 일하게 된다면, 문자 그대로 전화기에 붙이려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수험생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 단위로 전화가 온다. 이렇게 일이 많고 외부 사람을 대할 일이 많은 부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일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로장학이 단순히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 경험을 쌓는 일이 되는 것! 학교 교육지원팀에서 일했다는 L군은, 애초에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 분야의 일을 더 배우고 싶어서 근로를 시작했다고 한다. 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A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직업 체험을 미리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TIP.

- ① 경험자가 알려주는 진짜 꿀근로: 도서관 책 반납 대출, 심야 열람실 자리 지키기, 문서 전달하는 일 등 사람 대할 일이 별로 없는 일
- ② 경험자가 알려주는 진짜 X근로: 청소... 그리고 전화문의 받는 일
- ③ 개인 공부 할 시간을 벌고 싶다면 '조교', '인턴' 붙은 자리는 다 비추! 일이 많음.



“ P.S. 근로장학생이 하고 싶은 말

홈페이지 공지 사항 좀 꼼꼼히 읽어주세요. 메일도요... 분명히 대문짝만 하게 쓰여 있는데 왜 계속 다시 물으시나요 ㅠㅠ  
-외국인 유학생 담당 근로 S

장비 대여해가는 사람들... 제발 반납하는 시간 좀 지키고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써주세요. 장비 하나 망가지면 제 맘도 망가집니다.  
-A양

뭐 모른다고 근로장학생들한테 짜증 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답니다 흑흑.  
-휴학생 B

마감 지났는데 자기만 넣어달라고 떼서도 소용없습니다. 저에겐 권한이 없어요.  
-K양

우리 담당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해주시고 간식도 나누어주십니다! 맛있는 거 주는 사람=착한 사람.  
-P군

애매한 상황에서, 맘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화부터 내는 우리 담당 선생님... 나빠요.  
-근로장학 6개월 차 L

다들 꿀알바, 꿀알바 하지만 근로장학도 노동의 일종! 생활비 마련하랴 등록금 보태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동지들 파이팅입니다!  
-휴학생 Y





# 기사가 2배

대학내일을 스마트폰으로

• 페이스북/네이버/다음에서 대학내일을 검색하세요! •



## 기억의 베를린

작년 가을에는 베를린에 두 달간 머물렀다.  
그때 사진 몇 장 꺼내놓고 1년 전 기억을 더듬어봤다.

TRAVELLER 박선아 [pacusona@naver.com](mailto:pacusona@naver.com)

# BERLIN

TRAVEL





## 보고 싶은 친구를 찾아서

뉴욕, 브레이, 더블린, 헬싱키, 스톡홀름, 파리, 바르셀로나, 킬른, 도쿄, 카트만 두, 다딩,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쿠스코, 울란바토르, 교토, 오사카, 암스테르담, 런던, 에든버러, 베를린……. 20대에 다녀온 도시의 이름들이다. 몇 번이나 떠나고 돌아오길 반복했다. 여행의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

'여기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비행기 표를 찾아보고 있었고 이내 짐을 싸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있던 자리를 벗어나면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돌아올 때는 '지금'과 다른 내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고, 그런 기대로 비행기에 올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몇 차례 반복한 뒤로는 그런 이유에는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다. 있던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건 멀리 가도 알기 어렵다. 물론, 더러 뭔가 느낄 때가 있긴 하다.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하며 '돌아가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다짐하곤 했다. 하지만 집이 아닌 곳에서 순간적으로 느낀 일은, 또 그만큼 쉽게 사라지곤 했다.

작년, 그러니까 스물아홉이 되던 해에는 다른 이유로 여행을 시작해봤다. 20대 마지막 여행의 이유는 '친구'였다. 베를린에 사는 한 친구가 보고 싶었다. 그녀는 서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친구를 보기 위해 집을 썼다.

## 욕심이 없는 여행

친구의 베를린 집에 두 달간 머물렀다.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긴 시간 한 도시에 머무르는 일은 없었을 거다. 세상에는 아직도 가보지 못한 도시가 많고, 이왕이면 새로운 것을 더 보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여행이 목적이 아닌 여행에서는 별다른 욕심이 생기질 않는다는 걸, 베를린을 떠날 때 알았다. 뭔가를 꼭 보겠다거나 어디가에 가려는 의욕 같은 것이 도통 생기질 않았고, 가끔 마음을 먹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주로 있던 장소는 친구의 집과 카페였다. 카페조차도 그리 많이 가지 않았고, 거의 집에 있었다. 가장 오랜 시간 공들인 일은 요리와 대화였다. 느지막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한 사람이 요리하면 다른 사람은 옆에서 테이블을 준비하고, 음악을 고르고, 커피를 내렸다.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남은 음식이 그릇에 말라붙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렇게 아침을 먹으려고 앉은 자리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어젯밤에 함께 본 영화, 읽었던 책에서 좋았던 페이지, 듣고 있던 음악에 얽힌

기억이나 미처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같은 것들. 이런 주제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튀어나왔다. 해가 지면 어슬렁거리며 마트에 갔고, 장을 가득 봐 와서 또 식사를 준비했다. 밤늦도록 떠들다 보면 금방 잠잘 시간이 되었다.

하루는 근처 공원에 가서 잔디에 누웠다. 이리저리 뒹굴뒹굴하다 한 손을 심장 언저리에 갖다 댔다. 왜 그랬는지는 잘 기억나질 않는다. 혼자 팔짱도 끼보고 깍지를 끼서 머리 뒤로 가져다보기도 하다가 어색했는지, 어쩌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자세로 누워 있게 되었다. 심장이 뛰는 게 손바닥 아래에 느껴지는데, 그게 얼마나 낯설고 신기하던지. 살아 있음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곁에 있는 많은 일들이 신비롭게 보였다. 여행하다 보면 좀처럼 오지 않는 시간이 올 때도 있다. 언제부턴가 그럴 때, 비장한 표정을 짓거나 각오를 다지기보다는 그 순간을 솔직하게 기록해둔다. 최대한 들뜨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럴 때 쓴 일기나 찍어둔 사진을 시간이 흐른 뒤에 꺼내본다. 그 기억이 나의 오늘을 천천히 돌려보게 해주곤 한다.





## 기억해야 할 이름들

우리는 종종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다. 사람의 몸을 구겨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테라스였는데, 거기에 의자를 뒀다. 슬리퍼를 벗고 바깥으로 다리를 내밀고 앉았다. 발바닥이 시원했다.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하늘을 봤다. 별이 제법 뜬 날이어서 별자리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아는 이름이 몇 없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오리온자리……. 친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름 모를 별을 보다보니 또 다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내 친구가 한 남자애를 좋아하게 됐거든. 그 남자가 별자리를 많이 알고 있대. 친구는 그와 산책을 하면서 별자리 이름을 하나둘씩 알게 됐나봐. 그걸 내게 알려주기도 하고, 별자리 앱이라는 게 있대네? 그런 걸 받아서 같이 별자리 이름을 찾아보기도 한대. 그렇게 별자리 이름을 많이 알게 되는 거, 사랑스럽고 멋진 일인 것 같아.”

또 다른 날엔 근처 식물원에 갔다. 그날도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고 발을 뻗었다. 발바닥이 시원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하늘을 봤다. 잎사귀가 특이한 나무가 한 그루 보였다. 가까이 가서 꽃말의 이름을 확인했다. 독일어로 쓰인 이름이라 봐도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별자리 이름을 알고 싶어 하던 마음을 떠올리며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는 이름이 없을까. 별도 식물도 늘 근처에 머무는 것들인데……. 반대로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을 떠올려봤다. 연예인, 브랜드, 가게 같은 것의 이름을 정말 많

이 알고 있었다. 그런 것들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을 거다. 부지런히 찾아보고 반복하다 보니 잘 아는 이름이 된 것이다.

할머니 같은 소리를 하게 되어 슬픈데, 점점 기억력이 나빠진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기억력이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전보다 기억력이 나빠져서 오늘의 세세한 시간조차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루를, 한 달을, 일 년을 보내다 보면 어린 시절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게 되는 거라고, 요즘은 그 말을 체감한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눈가나 입가에 주름이 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그렇게 늙어야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 걸까.

베를린에서는 식물이나 별자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다. 역지로 공부를 하거나 하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었지만, 하나둘씩 그들의 이름을 알아가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별자리를 찾고, 함께 걸으며 발견한 어느 꽃이나 나무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이런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얼마 전에는 지리산에 가서 ‘배롱나무’에 피는 꽃이 ‘백일홍’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식물이나 별자리, 그리고 함께한 친구들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반복해서 영영 기억하고 싶다. 그런 이름을 많이 알고 이름에 얽힌 기억을 가진 할머니는 어쩐지, 근사하지 않을까.

오늘은 '여행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일은 또 변할 거다.  
겪어가는 일들에 따라 마음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비단 여행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니겠지.  
30대의 첫 여행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기에  
앉은 자리에서 다가올 여행의 모양을 그려본다.





# 당신은 아직 힙스터를 모른다

WHO  
IS  
A HIPSTER?

『후 이즈 힙스터? + 힙스터 핸드북』 저자 문희연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mailto:kikiki@univ.me)  
PHOTOGRAPHER 이서영

# CHECK LIST

- 맥주는 수입 맥주만 마신다. 선택지가 없으면 카스다.
- 국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제주도이다.
- 춤을 추고 싶다면 을지로의 '신도시'로 간다.
- 좋아하는 영화감독은 노아 바움백 아니면 자비에 돌란이다. 웨스 앤더슨은 기본이다.
- 언리미티드 에디션 참가 경험이 있다.
- 말할 때 자주 '물성', '소구하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주말 늦은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는 곳은 스타벅스이다.



WHO  
IS  
A HIPSTER?

위의 체크리스트 항목 중 몇 개에 해당되는가? 나는 2개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당신은 7개라고? 그래도 아직 안심하지 말라. 이 체크리스트만으로는 누가 힙스터인지, 힙스터가 대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다. 웃자고 재미로 만든 거니까. 진정 힙스터에 대해 알고 싶다면, 『후이즈 힙스터?/힙스터 핸드북』을 추천한다. 책 한 권을 다 읽을 자신이 없다면, 저자 문희연 씨를 인터뷰한 이 기사를 추천한다. 그에게 힙스터가 무엇인지 듣고 나니, 나도 힙스터가 되고 싶어졌다.

힙스터 체크리스트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체크리스트를 해본 결과, 애석하지만 저는 힙스터가 아니었 습니다.

'진정한 힙스터는 이런 거 안 한다'는 반응도 많지만, 힙스터라는 말에 '잘나가는 젊은 애들'이라는 의미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하는지도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이 체크리스트로는 힙스터나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일종의 짓궂은 농담이니까요.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 힙스터로 인정받으려면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가 봤어야 되고, 서핑은 양양에서 해야 되고, 멜론 TOP100보다는 인디 음악을 즐겨 듣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 취향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비꼬고 싶었어요. 심각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웃기게.

저자 소개글이 인상적이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읽고, 너바나를 듣고, 다리야를 보며 '나는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 했다."

어렸을 때 미국·일본 문화에 푹 빠져 살았어요. 지금의 나를 만든 것 중 80%는 무라카미 하루키이고, 20%는 일본 잡지 「멘즈 노노」, 「브루타스」라고 맨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취향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도 20대 분들이 읽기를 원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좀 더 좋은 것, 새로운 것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다음엔 '10대들을 위한 이상한 추천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보려고 해요. 10대 때는 주위 어른들이 뭘 권해주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즘은 다들 공부하라는 말만 하잖아요. 이런 노래 들어봐라, 이 영화 참 좋으니 한번 보라 그런 게 없으니까.

힙스터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 개념 자체가 90년대 미국에서 인디음악이 부흥할 때, 그 팬들을 부르던 말에서 유래했어요. 포틀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미드 〈포틀랜드〉에도 힙스터 코드가 많이 나오고요. 그때만 해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았죠. 근데 2010년대부터 성공한 힙스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24살 때 잡지를 창간한 「킨포크」 편집장, "땡스북스"를 비롯한 합정동의 작고 예쁜 가게들. 그때부터 힙스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 몇 년간 미니멀리즘이 대세죠? 그것도 힙스터들이 추구하던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였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가 아니라 소비 형태만 눈에 띄니까 욕을 먹죠.

그렇게 멋진 건데, 왜 힙스터가 되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나라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하면 다들 하지 말래요. 심지어 글 쓰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별로니까 다른 일 찾아보라고. 안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고치든가, 아님 이점에 유의해서 준비하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건데 하지 말라니요. 똑똑한 척하는 건지, 부러워서 그러는지. 힙스터도 비슷한데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는 20대들을 비웃는 30대가 많아요. 일단 큰 회사 들어가서 돈 벌고, 좋은 건 취미로 하라고.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왜 다들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힙스터를 말할 때 패션을 빼놓기 힘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어요.

힙스터 패션이라기보다는 흥대 패션, 이태원 패션이죠. 오리털 점퍼를 입으면 안 된다거나, 유니섹스 룩을 선호한다거나. 이게 결국 몇몇 유명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혁오 스타일이 유행했던 것처럼. 결국 유행에 따라 비슷비슷한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패션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그게 최고예요. 심지어 영화배우 예즈라 밀러는 환경을 위해 절대 옷을 사지 않고 대신 쓰레기통을 뒤져서 옷을 구한다고요. 그 정도로 옷에는 돈을 안 쓰고, 친구가 만든 옷 정도만 사는 거죠.

**그럼 최근 몇 년간 '복고'가 힙스터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미국, 일본에서 복고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60년대 히피 문화, 일본은 80년대 버블 경제를 추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억할 시기가 없어요. 전쟁 났을 때? 독재가 판칠 때? (응답하라) 시리즈만 해도 90년대까지는 시청자들이 공감했지만 80년대로 넘어가니까 10대, 20대는 왜 그런 시절을 그리워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구잡이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빈티지 카페가 유행하고 있지만, 맥락 없이 뒤섞여 있어요. 가구들은 다 로코코 풍인데 그 사이에 자개 장이 끼어 있고 막 그냥 따라 하는 거죠.

**이것저것 따라 해보면서 취향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요. 사람들이 뭔가를 좋아한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 취향이 점점 만들어지는 건데. 다만 다 따라 하면서 안 그런 척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좋더라'가 아니라 '이것 봐, 좋지?'라면서 마치 자기가 시작한 것처럼 말해요. 그래놓고 막상 대중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비웃으면서 또 다른 거 들이밀고, "넌 아직도 혁오 듣냐?" 같은 거죠.(웃음)

**왜 한국 힙스터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자주 눈에 띄까요?**

힙스터는 자기 성향이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외모 지상주의가 워낙 심하잖아요. 본인의 외모를 드러내지 않고도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힙스터들은 모두 트위터를 하죠. 관심을 받는 동시에 나를 숨길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에 비해 타인의 관심을 끌기도 훨씬 쉽고요.

**책에 "지금 현재 여러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 혁명'에서 힙이라는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는 대목이 나와요. 『합한 생활 혁명』이라는 일본어 책도 번역하셨고요. 국내에서도 '생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흥대 주변의 작은 서점들을 보면,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정말 원했던 일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출판사에 다니다가 1인 출판사를 차린 거거든요? 자기만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은 다음 혼자 힘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크게 성공한 경우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대박을 터뜨린 유어마인드 정도밖에 없지만요. 안타깝게도 문화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요.



# HIPSTER

**'킨포크'라는 키워드가 쇼핑물 홍보에 이용되고, 혁오나 10cm가 TV 예능에 나오면서 대중적인 가수가 됐어요. 힙스터가 자분에 잠식될 위험은 없을까요?**

대기업이 끼어들기엔 문화 판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들도 얻는 게 있어야 달려들죠. 미국이나 일본에선 문화가 돈이 되지만 한국은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의 힙스터들은 자분이 달려들어주길 원하죠. 간절히 원해요. 자분이 들어와야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 있어요. 이제 혁오 좋아하면 힙스터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비웃지만, 혁오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흥대 마이너 문화를 대중에게 알렸잖아요. 이젠 밴드 음악이 멋있다는 걸 10대~20대도 알잖아요. 게다가 일본, 중국으로 진출해서 지금 엄청 인기 많아요. 힙스터는 자분에 잠식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분을 이용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흥대 작은 카페에서 시작했던 언리미티드 에디션도 이젠 큰 미술관에서 하잖아요. 힙스터는 오히려 좀 더 확산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자본도 필요하죠.

**힙스터들은 개인주의자처럼 보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2000년대 말부터 힙스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오바마였다는 거예요. 힙스터들



이 이상천외한 기획을 내도 정부가 허가해 주고 지원해줬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안 잡아가고,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그게 안 됐죠. 특히 한국 사회는 더더욱 얽혀 있기 때문에 나만 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힙스터들은 그걸 아니까 협동조합도 만들고, 자주 뭉치면서 다 같이 잘 살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 혼자 잘 살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힙스터들은 대부분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뭐든 만들려면 내가 아무리 천재라도 절대 혼자서는 못 해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죠. 고시공부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결과물이 돌아오지만, 유기농 채소를 키운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또 채소를 사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 힙스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제까지고 계속 고시 공부나 취업에 매달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의 20대는 해외도 자주 나가고, 거꾸로 교환학생으로 건너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많으니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매체에서 힙스터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최근 <효리네 민박>이 대박 났는데, 이효리아말로 가장 대표적인 힙스터예요. 다들 그렇게 살길 바

란단 말이에요. 힙스터 라이프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꼭 이런 말이 따라붙죠. “이효리는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돈 많다고 다 이효리처럼 사나요? 아니거든요. 물론 커다란 민박집이야 없겠지만, 찾아보면 돈 없어도 이효리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TV에 안 나올 뿐이지. 대학 나와서 취업하고, 때 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다 똑같이 살 필요 없잖아요. 한번 힙스터처럼 살아보면 너무 좋거든요. 사람처럼 사는 것 같고,





덕후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입니다

## 신개념 SNS 'PUFF'를 만든 스타십벤딩머신의 전수영 대표를 만나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아직 희망을 볼태우던 어느 날이었다. 알트랩 신공으로 대학내일 사이트와 취업사이트를 오가며 태세전환을 하던 중, 독특한 취업 공고를 발견했다.

### 함께 뜻을 펼칠 덕력 높은 오타쿠를 모십니다

인재상이 오타쿠라니, 올해로 설립 4년차인 스타트업 '스타십벤딩머신'이란. 뭘 하는 회사인지 궁금해 다짜고짜 회사를 찾아가 전수영 대표를 만났다.

EDITOR 조용재 woongja1@univ.me PHOTOGRAPHER 오준섭

안녕하세요 대표님. 덕후를 뽑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시 모집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 직원 중에 자소서에도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었다', '유희왕 덕후다'라고 써서 뽑힌 직원들도 있습니다. 혹시 유희왕이라고 아세요?

저 그렇게 아재는 아닌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자, 기획자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덕후들이죠.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덕질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용공고에 저렇게 덕후를 뽑는다는 얘기를 넣으셨나요?

실은 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게 첫번째 이유고, 저희 인재상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덕후라면 아무리 사소한 분야일지라도 자신만의 큰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일 것이고, 무언가에 과몰입한 경험이 있다면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성격을 표출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는 뭘 하는 회사인가요?

비주얼 컴퓨팅 분야의 원천기술을 연구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자체 엔진을 개발하여 모바일용 B2C서비스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확보한 IP를 B2B로 라이선스하는 일도 병행하구요. 쉽게 말해 합성, 편집, 특수효과 등을 연구해 일반인들이 쉽고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PUFF구요.

PUFF는 어떤 앱인가요?

라이브 영상 기반의 SNS입니다. 요즘 세대는 사진/글 기반의 SNS와 영상 콘텐츠를 넘어 라이브 영상에 더 크게 열광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사진과 글을 주고받는 페이스북 등 SNS나 메신저와는 별개로, 라이브/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더욱 강력한 소통 수단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라이브라 하면 아프리카 BJ가 하는 방식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BJ가 아니라 퍼프 디렉터, 줄여서 PD라고 부릅니다. PUFF에 적용할 것까지 영상합성/편집 기술로 좀 더 쉽고 빠르게, 재미있는 효과와 놀이가 가미된 개인 라이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20대 이상 연령층에게도 먹힐까요? 저만 해도 영상 찍는 건 좀...

한국의 20대들은 사실 서양/동남아의 20대와 달리 영상 미디어 제작에 소극적인(Shy) 편이죠. 반면 지금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 그러니까 15세 미만 아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 사람은 만들고, 보기만 할 사람은 보기만 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성향에 따라 같은 앱을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일반 사용자들은 양질의 영상을 감상하기만 해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부 기획자들이 '퍼프 TV'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소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20대들이 아프리카 TV, 유튜브를 보듯이.



## 아프리카TV나 유튜브들이 과연 PUFF로 이동하려고 할까요?

PUFF는 크리에이터에게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PUFF에 있는 각종 편집, 특수효과 기능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고, 그걸 유튜브에 동시 송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기능을 준비중입니다. PUFF를 개인 채널로 활용하면서 기존 유튜브 독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이군요. 시장에 경쟁업체들이 많은데도요.

폐쇄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튜브, 페북, 아프리카... 저희가 어찌 감히 그들을 경쟁자로 둘 수 있겠습니까.(웃음)

##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물론 꿈은 커요. 하지만 신생 플랫폼으로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우리 걸 쓰라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먼저 찾는 유용한 앱이 되어야겠죠.

## 일어서 먼저 찾을 만큼 특별한 기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비주얼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려고 해요. 기술 수준은 국내 최상급입니다. MSQRD에서 구현한 얼굴 인식 기능, 인물 외 배경을 바꾸어 놓는 배경 합성 기술 등 신박한 요소를 차근차근 탑재해 나가야죠.

## 그럼 뭔가 매력적인 채널 같은 건 없나요?

'방과후 비밀연애'라는 라이브 채널이 오픈되어 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요. 에스팀 출신 모델 박종혁과 김승환이 당첨자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집까지 바래다주거나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중계하는 채널입니다.



##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외모를 보니 반응이 어마어마하겠군요.

항의가 어마어마했죠. 일주일 만에 1,48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대상을 고등학생에 한정하다보니 대학생, 중학생분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향후 3~5회 차 분량은 대학생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방송 예능 형식의 콘텐츠를 꾸준히 실험해 보려고 해요.

## 예리한 타겟팅이 잘 먹혔네요. 대표님은 원래 뭘 하던 분이셨나요?

이번이 3번째 창업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졸업에만 11년 걸렸죠.

## 남들 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학부생이셨는데요, 공부를 안 하셨나요?

사실 공부를 거의 안 하고 못 했어요. 학교 다닐 땐 영화, 음악에 빠져서 공부를 안 했죠. 사진 찍고, 영상 제작하고 잡지도 만들고... 제가 97학번인데, IMF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공부는 커녕 덕질만 했죠.

## 역시, 대표님도 덕질에 일가견이 있으셨군요

내공 있는 분들께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저도 모든 면에서 덕후입니다. 집에도 책이랑 만화책이 널려 있죠. 영화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 운영 철학이라던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마음가짐 같은 게 있나요?

회사 직원들에게 종종 얘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옥매트를 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자님은 당장 나가서 옥매트를 팔라고 하면 팔 수 있나요?

## 아뇨, 장수돌침대나 황토흠침대라면 모를까...

그렇죠. 옥매트라는 건 상징이예요. 누군가에게겐 하찮것없는 물건일 수 있겠지만, 내에게는 꼭 팔아야만 하는 물건. 100번 거절당해도 다시 1,000번을 시도해야 하죠. 어떤 일이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무시하고 비웃을지언정 해야만 한다는 거. 실패한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옥매트를 팔 궁리를 하겠죠. 그렇게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며 목표를 이루는 것. 실패해도 계속, 계속, 계속 하는 것. 이게 사업이자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늙기만해도 두통, 요통이 낫는 기적의 슈퍼 옥매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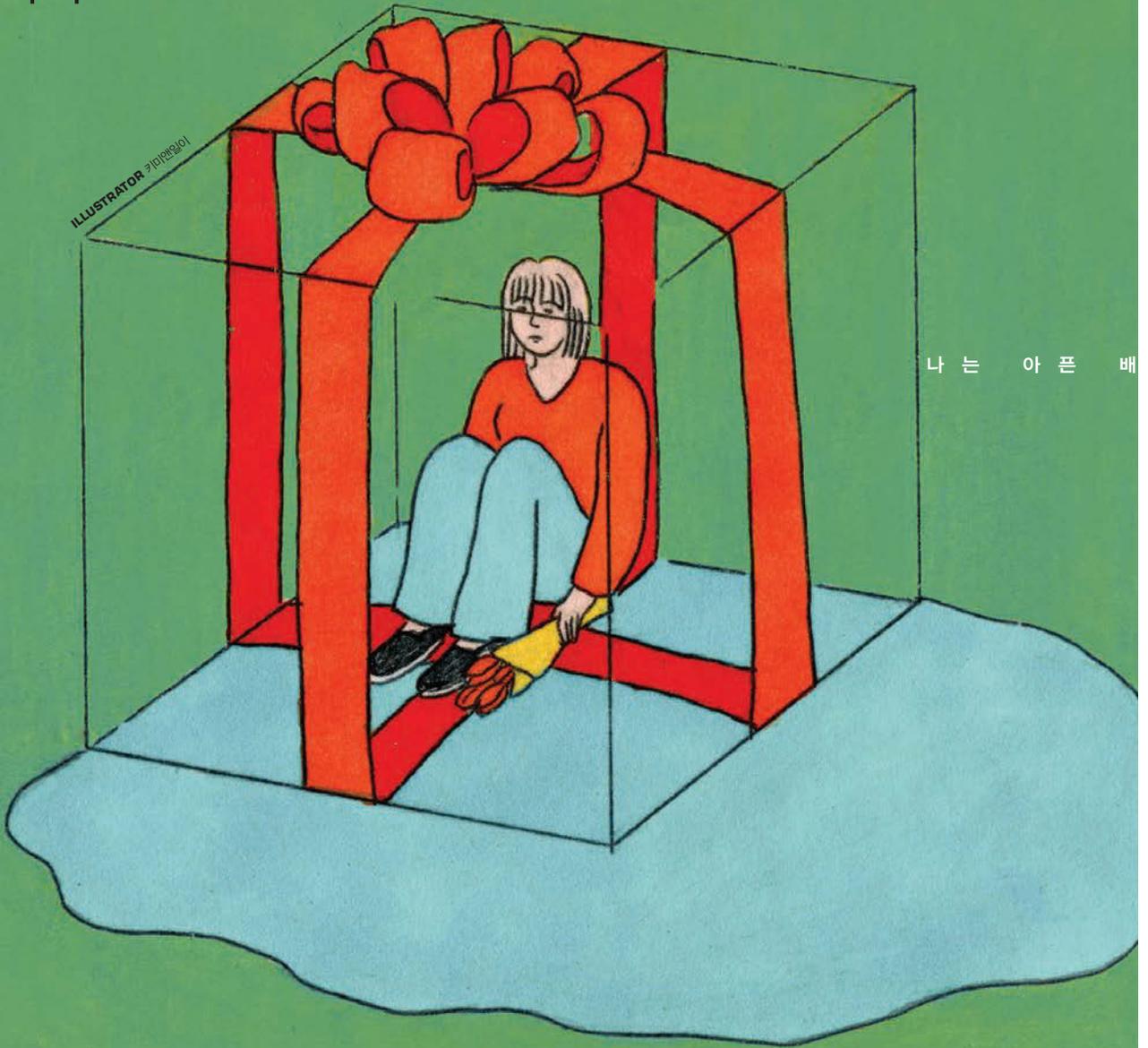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예전에 하셨던 사업이 설마 옥매트는...

아닙니다.

# 복통과

# 축하

ILLUSTRATOR 김민영김이



나는 아픈 배를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자주 박수를 요구하곤 했다. 누군가가 뭘 잘 했을 때이나 앞에 나와서 정답을 말할 때이나 상장을 받을 때면 어김없이 말했다.

“자, 박수!”

애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일찍이 감사와 사과를 학습했던 것처럼 축하를 훈련했다. 청중의 태도를 연습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워하는 애가 상을 받을 때면 나는 새끼손가락으로만 박수를 치고 싶었다.

축하한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때 내 입가를 스친 짧은 경련을 부디 아무도 포착하지 못했기를 바라지만, 눈치챈 누군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특정 순간에 약간씩 치사해줄 수 있다. 그리고 치사함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정말이지 치사하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치사해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초등학교 이후에도 축하와 격려와 칭찬 등을 연습해 왔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지금까지도 종종 축하에 실패하곤 한

하는 순간에 대비해 우리는 알아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텐데. 그녀가 혼자서 마음을 진정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투적으로 청소를 하려나. 차를 마시려나. 산에 오르려나.

나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어디론가 막 달려가는 쪽이다. 그리고 외친다.

“X 발 X 나 부럽네!”

그 후 편의점 와인을 사서 마신 뒤 코 잔다.

감사와 사과를 미루지 않듯, 질투와 시샘도 즉각적으로 말해버린다. 큰 소리로 자주 말하면 더 좋다. 너무 여러 번 말한 내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남 얘기처럼 느껴지니까. 이런저런 불행들도 어느 순간 남이 쓴 소설과 영화같이 멀어져버린다.

어쩌면 나는 너무 많은 영웅담을 읽고 자란 건지도 모르겠다. 역시 『삼국지』는 읽지 않는 게 좋았을까. 유년기 내내 나와 함께, 이문열의 글이 실린 열 권짜리 만화 『삼국지』를 읽고 또 읽은 남동생은 자신의 초라한 날을 어떻게 견딜까. 온갖 종류의 뛰는 놈과 나는 놈과

부 여 잡고 어 디 론 가 막 달 려 가 는 쪽 이 다 . 그 리 고 외 친 다 . “ X 발 X 나 부 럽 네 ! ”

다. 그런 소인배가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때도 있다. 얼마 전 한 친구에게 작은 경사가 있었다. 나는 서점에 가서 그의 사진들이 실린 잡지를 산 뒤, 메시지로 그에게 박수를 몇십 번이나 쳐서 전송했다. 그 무렵 또 다른 친구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남의 크고 작은 성과 앞에서 그저 함께 기뻐해줄 수 있을 만큼, 자기 인생이 똑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구름 한 점 없이 마냥 기쁘게 축하를 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누군가 환한 조명을 받을 때 내 어둠이 더 강조된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애매한 재능들이 지나가다 뽑은 인형처럼 볼품없이 느껴지곤 했다. 아쉬워하는 눈빛 말고 부러워하는 눈빛을 이제는 받아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결국 누구에게도 열망 받지 못한 채로, 모두에게 아쉬움만을 남긴 채로 자기 이야기가 끝날 것만 같다고 했다. 그녀가 별뿔뿔처럼 언제 빛날지 기다리던 사람들은 끝내 허탕을 쳤다며 자기들끼리 맥줏집으로 걸음을 돌릴 것 같았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는 아마 꿈쩍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남겨두고 맥줏집에 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해보았다. 그녀 옆에 남아, 소인배들의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 것이다. 내가 목격한 그녀의 별뿔뿔처럼 짧고 뜬한 재능에 대해 말해볼 수도 있겠다. 남들이 “뭐야, 방금 지나갔어?” 하며 놓쳤을 법한 순간들을 잘 상기하는 것이다. 습격처럼 다가오는, 남을 축하해야

대인배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탄생하는 그 긴 이야기를 읽으며 남동생은 주인공 혹은 영웅이 되어야만 한다는 초조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동생은 말했다. 삼국지에는 너무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중 주연이나 주조연이 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라고. 핀 조명을 받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내내 이어지지는 않고,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스스로가 다 발휘되지 않은 채로 지나간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에서도 무언가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자리를 상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영웅전에서는 오히려 주인공이 아닌 나날을 사는 이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듣자, 나는 갑자기 주연도 조연도 아닌 조명 감독 같은 일을 하고 싶어졌다. 아주 많은 조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좋겠다. 흔히 발견하기 어려운 곳까지 조명을 썩 구석구석 다 보이게 할 정도로 유능하다면 기쁠 것이다. 혹은 정면에 놓인 1번 카메라 말고 후면이나 측면에 설치된 5, 6번 카메라 뒤에 서고 싶어졌다. 그럼 나를 둘러싼 세계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확장될 텐데. 이전에는 축하해보지 못한 것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생길 텐데. 보기 쉽게 드러나는 것들만 부러워하느라 배가 아팠던 걸지도 모른다. 이제는 새끼손가락으로만 박수 치기를 그만두고 싶다. 여러 성공담과 실패담 앞에서 매번 시원한 박수를 짹짹 건네고 싶다. 소인배 말고 중인배 정도는 되어보고 싶다.



가로열쇠

- 01 미국 남부 버지니아 주의 한 도시, 지난 8월 12일 이 지역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던 극우 백인우월주의자들과 차별에 반대하는 이들이 충돌해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한 백인우월주의자의 '차량 테러'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펴 지지도가 24%대로 떨어지는 등 미국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 02 아프거나 괴롭지 않은데 거짓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을 이르는 말. "너는 특하면 조퇴하더라. OO 부리는 거 아 니야?"
- 03 거문, 검은덕이, 골머리, 군산, 다랑쉬, 도너리, 동알, 들레, 문도지, 물영아리, 방애, 백악이, 배두리, 베두리, 보름이, 사라봉, 삼형제, 어 승생, 여진머리, 열안지, 용눈이, 절물, 지그리, 쳇방, 큰사슴이 #368
- 04 1969년 데뷔한 이래 반세기 동안 수많은 음반을 발표한 영국의 팝 스타. 비틀스,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마돈나에 이어 전 세 계 음반 판매량 5위에 올라 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에 본인 역할로 출연해 화제를 낳았다.
- 05 각각 스스로 제 살길을 찾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사회적 안 전망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OOO'해야 한다는 뜻으로 최근 몇 년간 많이 쓰이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어찌 보면 'OOO'의 일환이다. 각자 O, 스스로 O, 꺾할 O, 살 O.
- 06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에미상 코미디 시리즈 부문 작 품상을 수상한 미국 드라마. 세 가족의 일상을 다루는 시트콤 형태 로, 현재도 미국 ABC에서 시즌9가 방영되고 있다. #JAY #GLORIA #CAMERON #MITCHELL #CLAIRE #PHIL
- 07 "어젯밤에 난 네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내 친구들이 너 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어젯밤 파티는 너무나 외로웠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가 없 는 년데/ 너는 그걸 왜 모르니"
- 08 산과 들에서 자라는 까칠까칠한 식물.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 늘공원에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산정호수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정선군 민동산에서 OO축제가 열린다.
- 09 2017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TOP 아티스트, TOP 세일즈 아티스 트, TOP 스트리밍 아티스트, TOP 랩 아티스트, TOP 랩 앨범, TOP R&B 컬래버레이션 등 13개 부문을 수상하며 아델의 12관왕 기록 을 갱 캐나다 출신 뮤지션.
- 10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을 가늘게 딸아 늘어뜨린 헤어스타일의 일종. 밥 말리 등 레게 뮤지션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선 '레게 머리'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OO룩스
- 11 접착용 메모지의 대명사.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수로 접착력 약한 제품이 나왔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널리 쓰이기 시작 했고 현재는 200여 개국에 판매되고 있다. #연노랑
- 12 <맨체스터 바이 더 씨>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그러 나 동료 여성 영화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수상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여론도 높았다.
- 13 윤기 나는 황금색 털을 가진 대형 견의 일종. 성격이 온순하고 영리 하여 사람을 잘 따르므로 집에서 기르거나 맹인 안내견으로 교육 받는 경우도 많다.
- 14 드라마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주인공이 하는 말: "사장님, 제가 급하게 써야 할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달 월급 미리 OO해주시 면 안 돼요?"
- 15 영어 시간에 지겹도록 외웠던 숙어. 'OOO A and B: A와 B 사이에'



세로열쇠

- 01 은은한 향이 나는 양파의 한 종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오래 전부터 서양 요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였다. 프랑스 요리를 집에서 도전할 때 맛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이 채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 02 2001년 국내에서 개봉한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영화. 영국 탄광 촌에 사는 11살 소년이 편견을 이겨내고 발레 무용수의 꿈을 키워나간다는 내용의 성장담이다. 소년을 연기한 제이비 뵘은 이 작 품으로 데뷔한 후 배우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내 몸 전체 가 변하는 기분이에요. 마치 몸이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마치 전 기차처럼요."
- 03 김영하 작가가 2013년 발표한 장편소설. 은퇴한 연쇄살인범이 알츠 하이머병에 걸려 점점 시라저기는 기억과 사투를 잃어간다는 내용이 다. 최근 설경구, 김남길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관객 수 250만을 돌파했다.
- 04 산소원자 3개가 결합한 기체. 이 기체는 지구 대기 상층부에 모여 층을 형성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기체의 밀도가 낮아져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되면 피부암이나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
- 05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한다"고 할 때, 희생되는 '소(小)'를 일컫 는 말.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염소를 제물로 삼는 데서 비롯되었다. #scapegoat
- 06 레몬즙을 찬물에 탄 뒤 설탕 등으로 단맛을 내는 음료. 설탕 대신 사이다를 넣어 만드는 경우도 많다.
- 07 "모든 리듬이 음악이 된다. (...) 에드가 라이트의 최고작은 아니다. 날것의 기발한 상상력은 (새벽의 황당한 저주)가 낫고, 뻔뻔한 농담 의 말장치는 (뜨거운 녀석들)(2007)을 따라올 수 없으며, 세상의 중심 이 자기인 줄 아는 왕성하고 뻔뻔한 소화력은 <스쿠 필그림 Vs. 더 월드>(2010)을 이길 수 없다. 그럼에도 베이비가 아이팟의 버튼을 누르고 음악이 시작되면 금세 빠져들고 만다. (...)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비디오뮤직." by 송경원 '씨네21' 기자
- 08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법인명 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연구 수행을 위한 국립 특수대학교로, 대전에 위치해 있다. #뽕개인하늘을볼보면 #크 개한번숨을쉬어봐 #이드라마보신분입니다
- 09 프랑스의 군인이자 정치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이 후엔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알제리전쟁을 평 화적으로 해결했다. 파리의 국제공항 이름 역시 이 인물에게서 따 온 것이다. "프랑스는 전투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지지는 않았습시다." #샤를앙드레조제프마리OO
- 10 2017 에미상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그는 <SNL>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분장하고 말투와 손동작까지 똑같 이 흉내 내며 화제를 모았다.
- 11 전직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부고발자. 그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 세계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 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해엔 그를 모델로 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다. #조셉고든래빗 #에드 워드OOO
- 12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슬플 O, 어조사 O, 아닐 O, 슬플 O
- 13 가을·겨울에 입으면 좋은 옷의 종류. 양털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느 낄을 주는 직물로 만들어졌다. #유니클로 #아디다스 #스파오
- 14 알버트스 - 이글 - 버디 - 파 - 보기 - 더블 보기 - 트립플 보기
- 15 띠 형태의 끈으로 만든 장식용 매듭을 뜻하는 말. #리듬체조 #블라 우스

# 인생 사진 찍으러 전시회 갈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가 됐다. 페이스북 피드에서 봤던 예쁜 전시회가 떠오른다.  
다녀온 사람들의 인증샷을 친구에게 보여주며 약속을 잡는다.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서 어떤 작품 앞에서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을지 고민한다.

## 01 20대 최애 문화생활은 전시회

최근 1년 내 전시회 관람 횟수 평균 **4.1회**



최근 1년 내 전시회 관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 (n=537)

문화생활에 정통한 친구가 있다.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얻는지 누구보다 빠르게 독특한 전시회를 다녀오고(곧 그 전시회는 SNS 핫플레이스가 된다), 있는지도 몰랐던 페스티벌을 즐기고 온다. 알고 봤더니 문화생활과 관련된 SNS 페이지를 수십 개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리고 꽤 많은 20대가 그녀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5명 중 3명(62.8%)이 문화생활을 자주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답한 것이다. 문화생활 정보를 얻으려고 SNS 계정을 팔로우(58.0%)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알아보는(56.0%)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문화생활 중 '전시회'를 가장 친근하게 생각(34.5%)하고 있었는데, 20대 10명 중 9명(89.6%)이 최근 1년 내에 전시회를 관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들이 최근 1년 내에 전시회를 다녀온 횟수는 평균 4.1회였다.

### 02 INTERVIEW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전시회 정보를 보고 다녀온 적 있어요. 그 페이지는 문화생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편이라 팔로우 해놓고 보고 있어요.

- 대학생 K양(26세)

## 02 예술 알맞으면 어때, 예쁘면 알면 됐지

### 03 INTERVIEW

예전엔 전시회가 좀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미술이나 예술을 잘 모르면 가도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전시회들은 일단 공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주제도 쉬운 거 같고요.

- 대학생 N군(21세)

전시회가 20대의 최애 문화생활이 된 배경에는 전시회의 변신이 있었다. 과거 전시회는 예술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만 가야 할 것 같았다. 엄숙하고 딱딱한 이미지였던 전시회가 쉽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젊은 층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 것이다. 전시회에 대한 인식 변화 조사 결과, 20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전시회들이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53.3%)고 평가했다. 전시 내용이 더 쉽고 친근해졌다고 생각한 대(46.9%)며, 주변에서 전시회를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44.1%)고도 말했다. 20대가 가장 많이 관람한 전시회 주제는 사진(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사진을 많이 찍게 되면서 사진과 친숙해진 20대가 사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전시회 또한 즐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관람한 전시회 주제 **사진 45.8%**



최근 1년 내 전시회 관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 (n=537), 복수 응답

20대는 더 이상 전시회를 어렵게 느끼지 않는다.  
최근 2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전시회는 유명 작가의 전시회가 아니라 내 취향에 맞게 꾸며져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전시회였다.  
그렇게 인증샷으로 관람 후기를 대신하는 것이 20대가 전시회를 관람하는 법이다.

EDITOR 남민희 minhee.nam@univ.me RESEARCHER 이재훈 정은미 DESIGNER 임다정

### 03 나도 가야만 할 것 같은 인증의 성지

전시회에서  
인증샷을 찍은 경험이 있는 비율

**89.6%**

최근 1년 내 전시회 관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 (n=537)



요새 핫하다는 전시회에 가면 '찰칵'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인기 작품 앞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줄 지어 있다. 달라진 전시회 풍경처럼 20대에게 '인증'은 전시회를 즐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20대 89.6%가 전시회에서 인증샷을 찍은 적이 있었고, 61.3%는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인증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 관찰되었다. 20대가 전시회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34.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뒤이어 색다른 공간을 체험하고 싶어서(26.8%)도 높게 나타났다. 여가 시간에 전시회를 보며 일상에서 벗어난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다. 인증샷을 찍는 것도 색다른 체험을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06 INTERVIEW

전혀 관심 없던 전시회였는데 다녀온 친구들의 인증 샷을 보면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 SNS 속 인증 샷이 전부인 전시회도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요.

- 대학생 L양(24세)

### 04 예쁜 공간에 갔으면 찍어야 해

### 06 INTERVIEW

최근에는 전시회의 '공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전시가 늘어나겠죠? 더 자주 다닐 거 같아요!

- 대학생 P양(22세)

20대는 전시 공간을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으로만 소비하지 않는다. 잘 꾸며진 전시 공간도 또 하나의 전시로 여기고, 공간 자체를 즐기는 것을 새로운 놀이 문화로 생각하고 있다. 20대가 선호하는 전시회의 모습은 전시 공간에서 사진 촬영이 자유롭고(85.7%), 전시품 외에 주변 공간도 콘셉트에 맞춰 꾸며져 있는 곳(94.4%)이기 때문이다. 전시회는 이제 20대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났다. 전시회 관람 경험이 있는 20대 10명 중 7명(74.1%)은 앞으로도 전시회 관람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성의 82.5%가 전시회 관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남성(65.3%)보다 여성이 향후 전시회 관람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선호하는 전시회

전시장 내 촬영  
가능한 전시회 **85.7%**



최근 1년 내  
전시회 관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  
(n=537)

● 2017 20대  
전시·페스티벌 문화 향유  
실태 및 트렌드 조사

● 조사 기간 2017년 7월 27일~31일(5일간)  
조사 대상 최근 1년 내 전시·페스티벌 참여 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20대 남녀 600명  
조사 기관 20대연구소 opensurvey  
표본 오차 ±4.00%p(95% 신뢰 수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20slab.org](http://20slab.org) 참고

●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국내 최초 유일의 20대 대학생과 직장인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www.fb.com/20slab](http://www.fb.com/20slab) [post.naver.com/20slab](http://post.naver.com/20slab)  
 [www.vingle.net/20slab](http://www.vingle.net/20slab) [opm.wikitree.co.kr/20slab](http://opm.wikitree.co.kr/20slab)

남자들은  
모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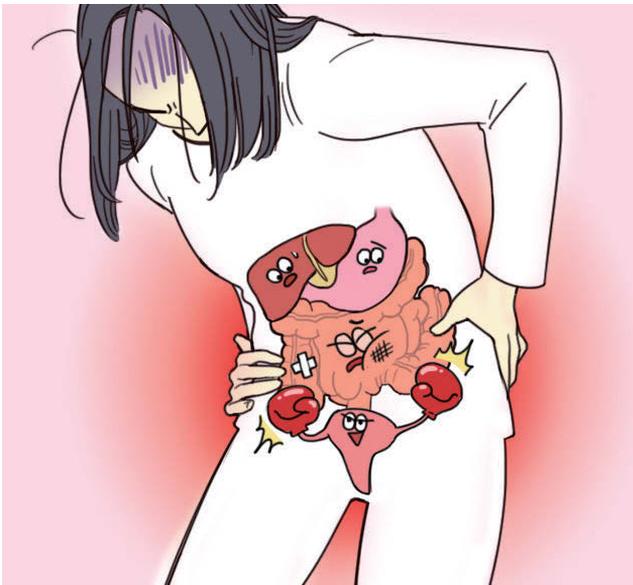
## 생리통 지옥 경험담 4

여자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열두 번, 십 년이면 백 이십 번을 겪어야 하는 생리, 그리고 생리통. 남자들은 생리통이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사람마다 어디가 아프지 어떤 방식으로 통증이 느껴지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르다는 건 모를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 때마다 매번 겪어야 하는 생리통 지옥 경험담을 살짝 풀어 보았다.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리통, 이제는 참기만 하지 말고 적절한 약을 먹어야 할 때!

EDITOR 전아론 aron@univ.me ILLUSTRATOR 백나영

01

자궁아 화났어? 자궁발광 대환장 파티



생리가 시작되면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 마치 누가 아랫배를 마구마구 때리는 것처럼 얼얼하고 아파... 게다가 생리통과 동시에 평소에 없던 변비가 찾아와서 얼마나 불편한지... 허리 아래가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질 때는, 아프기도 하고 기분도 너무 나빠. 절로 얼굴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어. 특히 아래 쪽에서 뜨거운 굴을 넣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배와 허리가 아파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 이... 자궁아!! 너 나한테 왜 이래 진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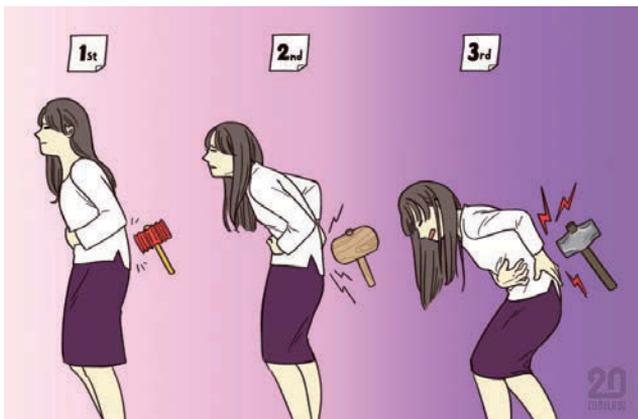
언제 어떻게 급통증이 시작될지 모르는 복불복



솔직히 항상 생리통이 심한 편은 아냐. 매번 아픈 친구들을 보면 좀 다행이다 싶어.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예고 없이 극심한 생리통이 시작된다는 거야... 언제 아플지 예상을 할 수 없으니, 일정을 미리 조정해두기도 애매해. 이번에는 괜찮겠지, 아니겠지, 하다가 당한(?) 적이 한 두번이 아냐. MT 갔다가 남들 다 놀 때 혼자 누워 끄공 앉았을 때는,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집에서 편하게 쉴 걸 후회했어... 게다가 해외여행 갔을 때 갑자기 시작된 생리통 때문에 이틀을 날렸을 때는 정말 울고 싶더라...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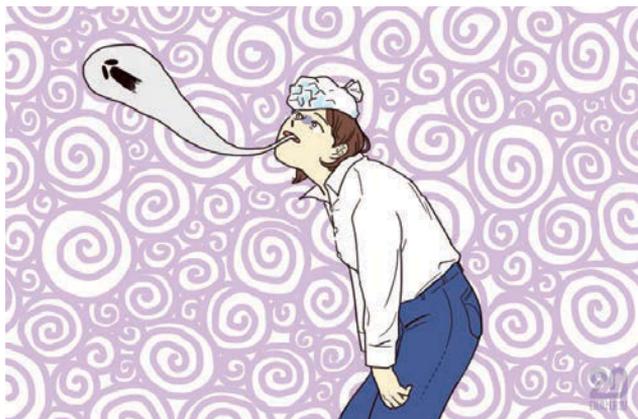
## 요통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기도 힘들어



첫째 날, 둘째 날... 날이 갈수록 점점 생리통이 심해지는 스타일이야.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해. 척추 끝이 분리되는 느낌이랄까... 골반이 떨어져나가는 느낌이랄까... 이럴 때 시험기간이나 중요한 과제가 겹치면 완전 헬이지. 삼십분에 한 번씩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공부한 적도 있어. 안 그래도 집중 안 되는 시험공부인데, 결과가 어땠겠어... 근데 솔직히 누워 있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잘 때도 누가 허리를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은 통증에 몇 번이나 깰다가 잠들었다가 하면 서러워서 눈물이 절로 나. 흑흑.

## 04

## 열나고 식은땀 흐르고, 일상생활 불가능



나는 생리통이 전체적인 컨디션 저하로 이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 그냥 힘이 좀 없는 거 아니냐고? 절대 아냐. 몸살감기처럼 온몸이 아파 온 달까. 근육통처럼 육신 육신거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배랑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심할 때는 열까지 난다니까? 휘청거리면서 걷고 있으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파워 당당하게 "생리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잖아. 그래서 몸이 좀 안 좋다고 둘러대면 연약한 척 하지 말라거나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럴 땐 네가 한 번 당해보라고 해주고 싶다. 진짜...



아픔은 후  
통증엔 딱!

★★★★

## 생리통, 참지 말고 약 먹기!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생리통 진통제 먹기를 꺼려했던 기억이 있어? 그건 잘못된 소문이야. 우리 몸에 통증이 생긴 후에 약으로 감각을 둔화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니거든. 오히려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 자체를 억제 시킨다고 해. 그러니까 생리통이 시작되고 난 후에 많이 아프다고 여러 알을 먹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약을 복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 더 이상 생리통을 참기만 하는 날들은 그만. 아픔은 후, 통증엔 딱. 펜잘 기억해줘!





중근당

“ 통증에 잘, 펜잘큐  
생리통엔 부드럽게 펜잘W ”



아픔은 후  
통증엔 딱!

펜잘



이제 통증별로 잘 맞게 펜잘로 바꾸세요!



## 대학내일 사칭이 의심되면 꼭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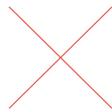
대학내일과 대학내일 기자, 리포터, 직원을 사칭해 대학생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때 미심쩍은 생각이 들면, 대표전화(02-735-3800)나 메일(univ@univ.me)로 연락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학생리포터나 기자, 에디터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취재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전화나 메일, 메신저 등으로 대학내일이라며 접근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경우
- ↳ 명함이 없다고 하거나 본인의 이름과 직함, 소속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 ↳ 종교 활동이나 불법 상행위 같은 대학내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기타 대학내일로 보기에 미심쩍은 활동이나 언행을 하는 경우

최근 몇 달간, 제보를 통해 사칭하는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친숙한 <대학내일>의 이름을 빌려 대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 20

## 대학내일



# WEEKLY OUTCAMPUS

01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02

국립현대무용단

픽업스테이지  
〈슈팅스타〉

03

연우무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 독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대학내일 매거진을 읽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만나고 싶은 기사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신 분들 중 매주 1명을 뽑아  
'SONY EXTRA BASS SRS-XB20 스피커' 제품을 드립니다.

메일 보낼 곳 [readers@univ.me](mailto:readers@univ.me)(이름,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중저음이 강한 아이유 스피커, SONY EXTRA BASS 스피커! 강한 중저음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아웃캠퍼스는 대학내일에서 운영하는 대외활동 정보 채널입니다

# #대학생만을 #위한 #금주의 #꿀정보

EDITOR 최화인 hwainny@univ.me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2017. 10. 16 ~ 11. 17

**공모 목적**  
한국대학(원)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공모 주제** (3개 주제 중 택 1)  
1. 운동  
2. 스포츠복지에 대한 이해와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  
3. 스포츠 스폰서로서 공단 지원의 필요성, 필요성을 위한 캠페인(광고) 전략  
4.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 공단에서 사업비를 지원

**스포츠복지란?**  
스포츠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 부문** 홍보, 광고 전략 등 홍보 전략, 캠페인(광고) 전략, 스폰서 전략

**시상 내역** 총 4등, 총 상금 1,000만원 및 이사장상

구분	1등	2등	3등	4등
명수	10명	20명	30명	30명
상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사장상	1명	1명	1명	1명

**공모 일정**  
접수 기간: 2017. 10. 16(월) ~ 11. 17(금)  
1차 예선 심사결과 발표: 2017. 11. 20(화)  
2차 본선 경쟁력 및 심사: 2017. 12. 7(화)  
\* 심사 일정은 추후 부처(국)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공모 방식**  
온라인 접수 및 심사(온라인 접수, 온라인 심사, 온라인 심사)

**접수 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공지사항, 내 대학 학생 홈페이지에서 문의서 제출

**문의 사항** 공모전 사무국: 02-6395-9127

KSPQ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www.kspo.or.kr](http://www.kspo.or.kr)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에 대한 이해 및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전략, '스포츠 스폰서'로서 공단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캠페인(광고) 전략, 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 제시하면 돼. 대상에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0만원 까지 지급할 예정이래.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접수 기간**  
~ 2017년 11월 17일(금)까지

**응모 형태**  
아이디어 요약 및 PPT 15페이지 이내의 아이디어 기획서

##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픽업스타이지 <슈팅스타>

연주: 로렌스 유 / 니콜라스 카리옹  
Laurence Yoo / Nicolas Carillon

음악: 블랙스트링  
Black String

2017. 11.10 금 - 예술의전당  
11.12 일 CJ토월극장

대학생 특별할인 30%

상영 20세, 주말 18세

### 픽업스타이지 <슈팅스타>

[www.kncdc.kr](http://www.kncdc.kr)

국립현대무용단에서 네 번째 픽업스타이지 <슈팅스타>를 선보인다. 국립현대무용단의 픽업스타이지는 국가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스타일의 국내외 안무가들을 초청해, 스위스에서 유명한 안무가와 한국의 무용수, 그리고 요즘 핫한 국악그룹인 블랙스트링이 함께한다. 잡힐 듯 말 듯 자유로운 여섯 개의 별뿔별 이야기를 다룬 <슈팅스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봐.

**공연 일정** 11월 10일(금) ~ 11월 12일(일)까지  
**공연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연우무대

**연우무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공연 일정 ~ 2018년 1월 21일(일)까지  
공연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www.yeonwoo.com](http://www.yeonwoo.com)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다섯 번째 시즌 공연 중이야.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한국전쟁 중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한국군과 북한군이 무인도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야. 미움과 다툼, 상처가 가득한 전쟁 속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이야기로 관객들을 마음을 사로잡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보고 싶은 친구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공연 일정** ~ 2018년 1월 21일(일)까지  
**공연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HR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http://cafe.naver.com/outcampus)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오뚜기	영업, 홍보영업, 생산관리, 품질관리, 엔지니어링, R&D, 마케팅, 디자인, 관리/재무/구매, IT	oras.jobkorea.co.kr	~ 10.20	서류 전형→인적성 및 직무 능력 검사→1차 실무 면접→2차 임원 면접→최종 발표
SPC	경영기획, 마케팅, R&D, 영업, 생산, 품질, 구매, 물류, 회계, IT	spc.recruiter.co.kr	~ 10.20	서류 전형→인적성 검사→1차 면접→2차 면접→최종 발표
샘표	경영관리, 재무, SCM, 디자인, CS, 지미원, 마케팅, R&D, 식품안전 및 품질보증, 생산공정관리, 영업	sempio.recruiter.co.kr	~ 10.23	서류 전형→인적성 검사→최종 면접→건강검진→최종 발표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코오롱	2017 코오롱 오토그래운드 광고 UCC 공모전	광고, UCC	~ 10.22	1등 상장 및 상금 500만원(1명), 2등 상장 및 상금 300만원(1명), 3등 상장 및 상금 100만원(3명)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제18회 대한민국 안경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 10.25	대상 상장 및 상금 300만원(1점), 금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1점), 은상 상장 및 상금 60만원(2점), 동상 상장 및 상금 40만원(3점), 특선 상장, 입선 상장
KT&G	제8회 KT&G 상상실현 콘테스트 수기 부문	수기	~ 10.27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150만원(1명), 우수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2명), 장려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3명), 입선 상장 및 홍삼 20만원 상당(4명)
보건복지부	금연 광고 공모전	광고	~ 11.3	Rand Prix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칸 라이언즈 참관 및 출품 기회 부여(1팀), Gold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2팀), Silver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50만원(분야별 1팀)
LH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 광고 공모전	광고	~ 11.6	대상 상장 및 상패, 장학금 500만원(1점), 금상 상장 및 상패, 장학금 300만원(3점), 은상 상장 및 상패, 장학금 200만원(3점), 동상 상장 및 상패, 장학금 100만원(6점), 장려상 상장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10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 11.17	대상 상장 및 500만원(1편), 최우수상 상장 및 300만원(1편), 우수상 상장 및 100만원(2편)

대외활동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활동 혜택
제이에스티나	뷰티 서포터즈 Dear J 1기	3개월	~ 10.20	제이에스티나 뷰티 인기 제품 매월 제공, 활동 완료 후 수료증 발급, 매월 우수 활동자 시상 및 활동 내용별 혜택 제공, 최우수 활동자 제이에스티나 관련 상품 증정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물링 트렌드 마케터 12기	2개월	~ 10.22	월별, 최종 활동 우수자 포상 및 상금 지급, 마케터 활동 종료 후 수료증 및 지원금 지급, 마케터 최종 합격자 입사 지원 시 가산점 제공, 타임스퀘어 이벤트 참가 기회 제공
아디다스 배드민턴	대학생 서포터즈 아디민턴크루 1기	4개월	~ 10.23	전원 아디다스 배드민턴 의류, 신형 테스트 제품 제공, 활동 기간 중 상시 30% 할인 쿠폰 제공, 매달 5~10만원 적립금 지급(활동에 따른 차등 지급)
텐바이텐	서포터즈 텐텐썬퍼	1개월	~ 10.25	쇼핑 지원금 25만원 지급, 내부 평가 후 1개월 추가 진행
롯데닷컴	동영상 리뷰 서포터즈 PROJECT R 3기	3개월	~ 11.5	월별 쇼핑 지원금 최대 10만원 지급, 월별 베스트 리뷰어 포상, 기수별 베스트 리뷰어 포상

강연 / 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edm 유학센터	제12회 영국유학박람회	www.ukedufair.com	10.21	장소: 부산 벡스코
KT	KT 청춘氣UP 토크 콘서트 #청춘해	yes24livehall.com	10.27	성인 1,000원

## 글의

## 소용

어릴 때 할머니가 은행을 구워줬었다.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아무 맛도 없고 구린내도 은은하게 났다. 씹으면 입안에서 밍그적거리면서 으깨졌기 때문에 둥글둥글 잘 빛은 똥을 씹는 느낌이었다. 몸에 좋다 좋다 먹어라 먹어라 하는 할머니의 성화에 알약 삼키듯이 '헉' 하고 삼켰었다.

마치 그때처럼 입속의 침과 공기를 숨이 짝 막히게 헉 삼킬 때가 있다. 너와 관련된 것, 아니 관련까지도 아니고 '관' 정도만 되는 게 떠올라도 그랬다. <생생정보통>에 너네 고향이 나와도 헉. 네가 은밀히 좋아하던 가수가 빵 뚫을 때도 헉. 거울에 계란빵을 볼 때도 헉. 흥대에서 헉. 사당에서 헉. 헉. 헉. 계속 헉. 호흡기에 무리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잘 때는 노래를 들었다. 귀에 뭐가 들리는 게 안 들릴 때보다 잡념이 덜했다. '좋은 노래다.' '조용하고 따뜻하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자기가 부른 노래와 비슷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 '너랑 계속 사귀었다면 어땠을까.' 끝엔 결국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며, 노래를 듣는 게 소용이 없어지던 밤들이었다.

하루는 내 앞에 나를 앉혀 놓고 빵을 때리는 상상을 했다. 나는 나름대로 나를 이야기 때문에 정말로 때리진 못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모두 내 잘못이었다. 철썩. 나는 이럴 자격도 없다. 철썩.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철썩. 상상 속의 나는 얼얼한 빵을 잡고 대들었다. 나도 상처 받았다. 철썩. 상처 받는 데도 자격이 필요하냐. 철썩. 많은 거 안 바라고 한 번만 보고 싶다. 철썩. ...., 한 마디도 안 지는 스스로를 보며 생각했다. 나 자신을 벌하기란 이렇게 어렵구나.

대체로 그런 진부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글을 봤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길어야 한두 계절이었다. 사랑하지 못한 너를 탓하지 마라." 그래, 우리가 더 만났어야 한두 계절 더였을 거다. 나는 그때의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침체된 피가 다시 흐르는 것 같은 안도감이 들었다. 쓰다 버린 위로 같은 말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이래서 글을 읽지.' 나는 갈비뼈가 빠근하도록 뿌듯해했다.

이후엔 그 문장을 주문처럼 외웠다. '헉-' 했다가도 그 말만 생각하면 혈에 침을 놓은 것처럼 호흡이 돌아왔다. 이 문장만 있으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그런 평안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굶으며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폐복도 하고 인스타도 보고 하다 하다 할 게 없어서 핸드폰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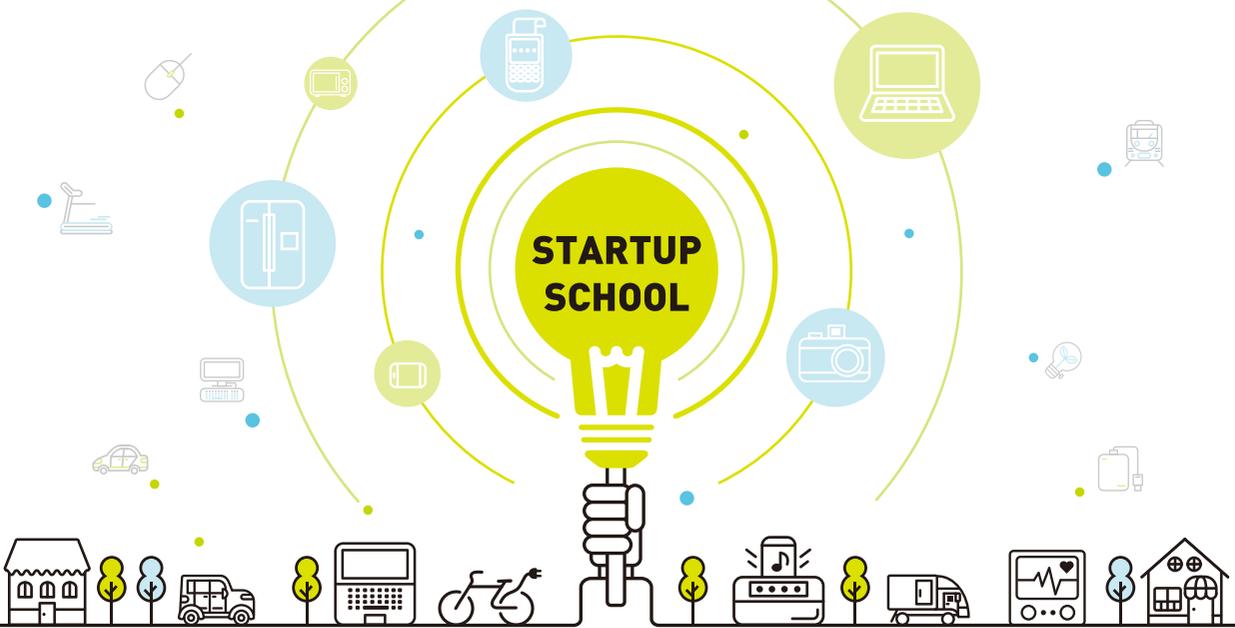
'드르르릉- 크르릉- 크흐르르릉- 흐르릉.....'. 이 무슨... 무슨 코고는 소리지? 낮고 불규칙적인 코고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코를 안 곤다고 자꾸 우기던 너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했던 파일이었다. 네가 깨지 않게 입을 틀어막고 꼭꼭 웃으며 녹음했었다. 결국 너에겐 못 들려줬으니 너는 아직도 내가 코를 안 고는 줄 알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알려줬을 지도.

나는 나의 주문을 생각해내야 했다. '길어야... 계절... 길어야...' 발까지 쿵쿵 구르며 생각해보려 했다. 생각나라, 생각나. 그럴수록 무엇을 생각해내려는 것인지 가물가물해졌다. 길지 않은 문장과 그걸 떠올리려는 나의 노력은 큰 파도 같은 무언가에 멀리 떠내려갔다. 더러운 창으로 때가 탄 햇빛이 비쳤다.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것처럼 팔을 기억 자로 구부려 책상에 놓았다. 그 위로 얼굴을 숙였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콧물 때문에 숨 막혀 하며 생각했다. '글은 참 아무 소용이 없구나.'

미래를 바꾸는 스타트업 교육센터  
6기 참가자 모집

# 2017 sba 스타트업스쿨

「Hi Seoul 창업스쿨」로 시작하여 지난 13년간 국내 창업교육의 역사를 선도해온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올해 마지막 과정에 함께하실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단기간 내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의지와 열정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모집인원** 총 100명(3개반, 각 33명 내외)

**참가비용** 개인부담금 15만원

**교육일정** (야간반) 11.6(월)~12.7(목), 매주 월/목요일 19시~22시  
(주간반) 11.9(목)~12.7(목), 매주 목요일 13시~19시  
(주말반) 11.11(토)~12.9(토), 매주 토요일 10시~17시

**교육장소** SBA 신직업에듀센터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3호선 학여울역 3분)

**신청방법** SBA홈페이지(sba.seoul.kr) - 사업신청 - 사업명 클릭  
첨부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

**신청기간** 9.28(목)~10.26(목)

**심사신청** 10.30(월)~11.2(목) 예정, 결과는 개별 통지

**문의처** 서울산업진흥원 신직업교육팀  
Tel. 02-2187-4684/4690 E-mail, startupschool@sba.seoul.kr

**실전교육 커리큘럼(안)** 30시간 기준

구분	강좌	주제
이론	1강	창업가와 기업가정신
	2강	참가자 네트워킹
	3강	그룹멘토링
	4강	4차산업혁명 등 트렌트 및 창의적 사고
교육	5강	비즈니스모델링(1) - 제품/서비스 컨셉과 가치
	6강	비즈니스모델링(2) - 고객 및 시장선정, 차별화
교육	7강	MVP 런칭과 마케팅
	8강	스타트업 피칭 노하우
	9강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정책사업
	10강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법률지식
	11강	스타트업에게 유용한 IP 정보
	12강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확보전략
	13강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전략
Case Study	14강	스타트업 실전스토리 특강
	15강	참가자 네트워킹
멘토링 및 네트워킹		1:1 맞춤형 멘토링 및 네트워킹 & 피칭데이 별도 진행

\* 과목별 강사는 스타트업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하며, 커리큘럼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1 교육 80%이상 참여시 SBA 대표이사 명의 수수료 발급
- 2 전문가 1:1 집중코칭, 멘토링 등 최대 10회 지원
- 3 우수수료생은 '네트워킹&피칭데이' 개최시 피칭기회 부여
- 4 서울창업허브에서 시행되는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우대(가점적용 등)

함께하는 파트너 그룹



# 일본 취업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호텔 및 요식업, IT, 엔지니어링, 부동산, 소매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종에 맞춘 일본 기업문화 이해와 동시에  
비즈니스 일본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



**# 일본인 강사가 직접 비즈니스 일본어 강의**

**# 일본 기업문화를 반영한 면접스킬 & 컨설팅 & 모의면접**

**프로그램 목표 :** 비즈니스 일본어 습득과 일본 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지원 프로젝트

**모집 인원 :** 30명

**모집 대상 :** 新JLPT N3 레벨 이상 (\*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 동등한 학력 소지자, 취업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모집 기간 :** 2017년 10월 11일 ~ 10월 26일 까지 (응시자에 한해 내사면접 후 최종선발)

**실시 기간 :** 2017년 11월 1일(수)부터 ~ 3개월

**#수업료 전액 지원 / #수료자는 일본 취업 성공까지 면접 기회 부여**

주최 · 진행

ともにまがく、あらいまう。  
necareer

TOS  
Total  
Outsourcing  
Service

문의 / 접수

(주)토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빌딩 9F  
TEL: 02-2010-2880 (02-707-0680)  
E-MAIL: airwolf@i-tos.co.kr 해외사업팀 담당자

접수 방법

<http://www.i-tos.co.kr> 접속

- 중앙 하단 일본취업컨설팅 참가자모집 Click
-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